



Adopt a Day 815 기도회 참석자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있다.



한미장로교회에서 8월 15일 건국 66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거행됐다. 대한민국건국대통령이승만박사기념사업회가 주최한 이 행사는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일을 건국일로 보는 견해를 지지한다.

남북 분단 70주년 앞두고 한인 2세들 기도운동

기독교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활동

한인 2세를 중심으로 한국의 독립을 기념하고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 운동이 시작된다. 이른바 Adopt a Day 815다. 2015년은 한국이 광복을 맞이한 지 70년이 되는 뜻깊은 해다. 그러나 이날은 한국이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된 지 70년이 됨을 의미하기도 한다.

Adopt a Day 815 운동은 2014년 8월 15일 즉, 70주년이 되기 딱 1년 전 날, 베벌리힐스에 있는 힐튼호텔에서 기도운동을 시작했다. 이는 다니엘서 9장에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예언 중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부르짖은 장면이 기초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의 독립과 역사에 관해 미주 한인교회 차세대들에게 각종 정보 제공함과 동시에 특히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치시고 북한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기도한다.

이 행사는 남북 분단, 6.25 전쟁, 북한의 기아 문제, 이산가족 문제 등에 관한 미디어가 상영되면서 시작했다. 또 남한과 북한이 여전히 함께 부르는 노래 중 하나인 아리랑을 유수경가야 전통무용단의 춤으로 감상하는 시간도 있었다.

이후 조 김 교수(골든게이트침례신학교), 박기호 교수(풀러신학교), 유니스리 씨(약사, 북한 방문 경험자), 박성근 목사(로스앤젤레스한인침례교회), 벤 신 교수(탈봇신학교), 메리 박 교수(바이올라대학교), 박형은 목사(동

양선교교회) 등이 짧은 메시지를 전했다.

박형은 목사는 "1세대들은 북한을 향해 여전히 상처와 아픔을 갖고 있지만 2세대, 3세대들은 그렇지 않다"면서 한인 차세대들이 북한을 위해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박성근 목사는 "경쟁이 아닌 협력의 정신으로 변화될 것"을 강조했다. 이 행사는 특정 단체가 주도한 것이 아니고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 한인들이 2세들을 중심으로 단체도 주최도 없이 모인 것이 특징 중 하나이다. 이들은 앞으로 단체를 창립하지 않고 순수하게 내년 8월 15일을 준비하며 기도운동만 할 예정이다.

박기호 교수는 "우리는 주님께서 한국의 평화로운 통일을 이루시길 기도한다"면서 "그의 능력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은혜와 자비를 구하며 기도하자"고 당부했다.

이미 한인 1세들을 중심으로는 약 10년 전부터 통국기도회가 LA에서 시작되어 지금 한국을 비롯해 유럽 등 전 세계에서 펼쳐지고 있다. 이 운동이 북한 동포의 해방과 구원에 초점을 맞춘 기독교 인권 기도운동이라면 815 운동은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북한의 회복을 부르짖는 기독교 민족주의의 기도운동이라 볼 수 있다.

문의 : adoptaday815@gmail.com, www.adoptaday.com 이윤형 기자

“대한민국 독립과 건국은 하나님 은혜”

남가주 교계를 중심으로 8.15 건국절 66주년 기념식이 거행됐다.

한미장로교회에서 8월 15일 오전 11시 열린 이 행사는 대한민국건국대통령이승만박사기념사업회 주최로, 미주군목회, 재향군인회 미서부지회 등 보수단체와 남가주한인기독교원로목사회 등에서 약 80여 명이 참석했다.

예배에서 이윤영 목사는 “진리와

자유”라는 제목의 설교로 대한민국의 독립과 건국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강조하며 한국이 기독교 신앙으로 더욱 굳건히 세워지길 기도했다.

이 예배에는 회장 김봉건 장로, 사무총장 최학량 목사를 비롯해 교계원로 박영창 목사, 원로목사회장 이태환 목사, 미주군목회장 이기홍 목사 등이 참석했다.

현재 대한민국의 건국일에 관해

서는 논란이 분분하다. 일반적으로 1919년 4월 13일 상하이에 임시정부가 창립된 날로 보는 견해와 1945년 8월 15일 일제로부터 독립한 날로 보는 견해,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일을 건국일로 보는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따라서 아직 건국절은 공식적으로 제정된 국가절기는 아니다.

김준형 기자

믿음으로 사는 남성들 특별 집회

다이아몬드 감사한인교회(담임 김일권 목사)가 “믿음으로 사는 남성들 특별집회”를 연다. 브레아로 교회를 이전한 지 2주년을 맞이하며 교회의 목적을 회복하고, 이 시대의 남성들을 격려하며 축복하고자 하는 행사다.

8월 27일(수)과 28일(목) 오후 7시 30분에 행사가 열리며 행사 전인 오후 7시에 간단한 식사도 제공된다.

첫째 날은 “침”이라는 주제로 CCM 가수이자 “나는 내 아들이라”의 작곡자인 이은수 목사의 찬양과 간증에 이어 고현중 목사(알바인 디사이플교회)가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된다.

둘째 날은 “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리게 되며 “야곱의 축복”으로 널리 알려진 소리에 지명현 목사의 찬양과 간증에 이어 서울 은누리교회 남성사역을 섬겼던 이은호 목사(사이닝펠로십교회)가 남성들의 몇 가지 이슈를 가지고 은혜의 메시지를 나누게 된다.

김일권 담임목사는 “이 집회를 통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분들이 새로운 용기와 소망을 입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소 : 451 W. Lambert Rd. #204 Brea, CA 92821

문의 : 714-988-3321 909-279-1919

김나래 기자

중소형 교회 위한 음향세미나

원하트미니스트리가 9월 1일(월) 오후 2시부터 저녁 9시까지 KCCC 소극장(1636 W. 8th St. #205, Los Angeles)에서 교회 음향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 세미나는 음향시설이 부족하고 음향전문가가 없어 찬양팀 공연이나 예배 때 음향을 다루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는 중소형 교회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15년 이상 라이브/레코딩 엔지니어로 활동한 피터 박 목사가 교회음향 담당자, 찬양팀, 부교역자를 대상으로 교회 음향, 기초 음향과 기기 사용법, 찬양팀과의 소통, 녹음, 디지털 믹싱에 관해 강의한다. 참가비는 20불.

문의: 951-973-9573(강석빈 전도사)

나라정비 타이어 대리점
GOODYEAR
 유럽차전문점
 SMOG CHECK
 범퍼·도어·바디복원·무료견적·Rent Car
 323.734.4881 | 월~금: 8am~6pm / 토: 8am~5pm 1201 S.Western Ave, LA 웨스트파 12가

크리스천을 위한 **오바마케어 벌금면제 혜택**
 (H.R.3590 Religious Exemption)
월\$40~\$175
 • 수입과 신분에 상관 없음
 • 모든 의사, 병원 사용 가능
 • 한국에서도 사용 가능
 가입문의 213-700-9212
 www.christianmutual.org

DK HEALTH INSURANCE, INC.
건강보험 전문회사 DK 건강보험(구 하나건강보험)이
65세 이상의 메디케어 건강보험과 오바마케어 건강보험을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모든 건강보험 플랜을 취급합니다)

KAKAO TALK

213-500-4563
 ID:DKHEALTH

P오바마 건강보험 (Covered CA)

1. 손님의 요구에 따라 각 카운티와 계약된 모든 건강보험을 보험료와 보험혜택을 꼼꼼히 비교 분석하여 드립니다.
2. 정부의 건강 보험 플랜이기 때문에 메디칼 그리고 커버드 캘리포니아 플랜과의 소득에 따른 연관성이 있습니다. 플랜 가입후 메디칼에 대한 고객 서비스 그리고 각 헬스 플랜에 따른 고객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처방약이 보장이 되는지 그리고 의료 외 혜택에 대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통해 항상 여러분곁에 있었습니다. 카카오키프 DK-HEALTH 나 213-500-4563 을 기억 하십시오.)

메디케어만 가지고 있는 분들의 건강보험

1. 메디케어만 가지고 있는 분들의 건강보험을 분석하고 메디케어 수혜자에게 가장 맞는 건강 보험을 비교 분석하여 드립니다. (처방약 비용 분석, 처방약 보장 분석, 차과 혜택 분석, 인경테 렌즈, 보청기, 헬스클럽등의 배니핏이 최대한 보장되는 플랜을 비교 분석하여 드립니다.)
2. 당뇨질환이나 심장질환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메디케어 건강 보험
3. 신장투석을 하고 있습니까? 신장투석을 하거나 신장이식을 하신 분들을 위한 건강 보험 등을 분석 검토하여 드리겠습니다.

0세부터 65세까지의
모든 건강 보험을 도와드립니다.
65세 이상의 건강보험도 도와드립니다.

문의 전화 **1-855-386-3088, 1-213-500-4563**
 LA 본사 주소: 520 S VIRGIL AVE #204 *샌 디에고, 오렌지 카운티, 다이아몬드 바에도 오피스가 있습니다.

DK HEALTH INSURANCE, INC.
 (구, 하나건강보험)

“해외 선교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새 성전 선물 주셔”

팜스프링스한인교회 창립 10주년, 세계 선교의 전진기지 될 것 다짐



팜스프링스한인교회가 지난 17일 창립 10주년을 기념하며 동시에 새 성전 입당 감사예배를 드렸다.

“하나님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제가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저의 일을 해 주십니다.”

올해로 창립 10년을 맞는 팜스프링스한인교회(담임 최승목 목사)가 17일(주일) 오후 5시에 ‘새 성전 입당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 교회는 미국교회 건물을 빌려 사용하다가 2009년 최승목 목사가 3대 담임목사로 부임한 후 꾸준히 부흥해 미국교회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받았다. 이에 교회건축을 위해 양춘규 장로를 건축위원장으로 세우고, 전 성도가 전심으로 기도하며 팔을 걷어붙였다.

하지만 역부족이었다. 예상한 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이 필요했다. 전 성도가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와중에도 선교를 쉬지 않았다. 우리 교회는 못 지어도 선교지의 교회를 건축하는 일에 기쁨으로 지원했다.

그러는 중에 팜스프링스한인교회는 기적을 경험했다. 최승목 담임목사는 “8년간 중단된 멕시코 교회의

성전 건축을 도우러 가다가, 3 에이커 땅과 교회 건물 두 채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며 “멕시코 선교지에 가다가, 하늘로부터 받은 선물이다”라고 말했다.

최 목사는 그동안 성전건축으로 고

족뿐 아니라 모든 성도의 눈물과 기도로 이루어진 이 성전을 통해 모두가 살아 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게 되기를 소망한다.”

1부 테이프커팅식과 입당감사예배, 2부 입당감사 축하공연이 이어진

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큰 기적의 역사를 써 가라”고 전했다.

건축보고를 한 양춘규 장로는 “새 성전은 모든 성도들의 믿음과 기도, 각 선교회 담당자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이뤄졌다”며 “세계선교 및 복음화의 전진기지로 삼아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한기형 목사(나성동산교회 담임, 기독교대한감리회 미주연회 초대 감독)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입당을 선언했다.

이성우 목사(미주성시화운동본부 본부장)는 “은 성도들의 눈물과 믿음으로 기적같이 세워진 새 성전을 통해서 팜스프링스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세계를 선교하는 선교센터가 되는 교회가 되라”고 축사했다.

2부에서는 우리가락선교회의 가야금과 대금 합주, 손서경 사모의 발레 공연, 최경은 교수의 첼로 연주, 이즈키엘 팀의 뮤지컬, 허준호 집사의 찬양 콘서트 등 수준 높은 공연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팜스프링스한인교회는 ‘오병이어



최승목 담임목사

의 기적이 매일 일어나는 교회’란 표어 아래 주일 오전 11시, 금요일 오후 7시, 토요일 오전 6시에 예배를 드린다.

주소: 75580 Ramon Rd. Thousand Palms, CA92276
홈페이지: www.pspkmc.com
전화: 760-636-2675

이인규 기자

기적처럼 새 성전 입당해 감사와 감격 넘쳐

“우리가 하나님 일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일 하신다”

생하며 기도했던 모든 성도들의 헌신과 희생을 치하하며,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팜스프링스 지역을 세계 선교의 고두보로 삼겠다는 포부도 함께 밝혔다.

“이 건축에 모든 성도가 동참했다. 교회학교가 팔방수를 팔고, 여성교회에서 김치를 팔고, 한미사랑선교회에서 만두를 팔고, 남산교회에서 골프 대회를 열고, 아들은 2달간 잔디 깎아

모든 전액을 하나님께 드렸다. 제가

이날 행사에서 최승목 목사가 사회를 본 가운데 JOY찬양단이 찬양하고 손선지 목사가 기도한 후, 박희민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박희민 목사(미주성시화운동본부 대표)는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 목사는 “진정 소망이 없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참된 소망을 얻었다”며 “새 성전을 통해서 산 소망 되신 예수 그

새빛한의원 Saevit Acupuncture clinic 323-735-6365 올림픽+하버드
3130 W. Olympic Blvd, Suite 380 Los Angeles, CA 90006

한방내과, 한방성형 & 통증클리닉
늘 환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환자의 몸이 지니고 있는 “자연치유력”을 살려내는 새빛이 되겠습니다.

수술없는 한방 성형
치진 턱선을 올려 젊음 유지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보세요.

한방감기 특별처방!!
(5월분-\$35)

약력 북경중의대학졸업 전 한의과대학 교수역임(삼라한의원) W 교통사고 · 각종보험 · 여행자보험

천천히 다 돌려보내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3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 찰리 정

푸엔테 힐스 현대 HYUNDAI
Puente Hills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2014 가을 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목회학 (Korean Theology) (310) 539-1100

-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 승천 등의 기독교론과 성경 세례, 은사, 사역의 실제와 예배로 영광돌린다.
- 기독교 사상을 바울 서신서를 중심으로 신학적 정립하며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재조명하는 능력을 기른다.
-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성서적으로 올바르게 이해하여, 깨어 준비 기도하는 삶을 고취시키도록 한다.

바울 서신서 (3)	김용호 교수	월 6:50 P.M. - 9:10 P.M.
신약 강론 (1)	이관호 교수	월 9:20 P.M. - 10:10 P.M.
성령 사역 및 예배학 (4)	김요한 교수	화 6:50 P.M. - 10:10 P.M.
요한계시록 (3)	라명철 교수	목 6:50 P.M. - 9:10 P.M.
구약 강론 (1)	이관호 교수	목 9:20 P.M. - 10:10 P.M.

사역자 훈련 (Ministerial Training) (909) 438-8345

- 주님의 지상명령 (마 28:18-20)에 부름 받은 선교적 사명을 수행할 자로 성경적인 기본을 다지고 선교적인 확신과 역사를 다룬다.
- 성령의 사역자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은사와 기쁨부으심과 성화된 인격을 개발하는 것을 다룬다.
- 사역의 기본과 성령 안에서 창의적인 사역들을 이루어 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훈련 받는 것을 다룬다.

사역의 기본과 실제 (5)	박문환 교수	토 10:00 A.M. - 2:00 P.M.
성령 사역 및 예배학 (4)	김요한 교수	화 6:50 P.M. - 10:10 P.M.
Healing & Power Min (5)	Paul Sung 교수	토 3:00 P.M. - 7:00 P.M.
성령 사역 및 예배학 (4)	김요한 교수	화 6:50 P.M. - 10:10 P.M.

기독교 상담학 (714) 298-8763

- 상담에 대한 기본 개념과 함께 여러가지 상담학의 기초 개념을 이해함으로써 상담자로서의 기본 자세를 갖추도록 돕는다.
- 인간 발달의 단계별 과제를 이해하고 발달 과제의 결함으로 인한 결과 및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영적 성장을 추구하도록 돕는다.
- 결혼 적령기 청년들의 필요 및 남녀 차이 이해, 아울러 결혼의 언약적 측면을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기독교 상담학 개관 (3)	금병달 교수	목 10:00 A.M. - 12:20 P.M.
청년기의 이해 및 결혼 (3)	금영진 교수	목 1:00 P.M. - 3:20 P.M.
내면의 이해와 영적 성장 (3)	금병달 교수	목 6:50 P.M. - 9:10 P.M.

영어 목회학 (English Theology) (310) 749-0592

- 영어는 국제화 시대에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언어이다. 영어 신학과정은 영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영어 목회학 과정은 영어 실용 및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 남미, 아시아 등 해외에 영어로 선교 목회할 수 있도록 돕는다.

4복음서 (3)	Daniel Rhee	월 12:00 P.M. - 2:20 P.M.
교회 역사 (3)	Daniel Han	월 2:30 P.M. - 4:50 P.M.
IC (3)	Daniel Rhee	월 8:00 P.M. - 10:20 P.M.

- 유학생에게 1-20를 발급합니다.
- 개강예배 9월 2일(화) 오후 7시.
- 과목별 청강생을 환영합니다.
- 신앙 서적 기증바랍니다.

미주성결대, 세계 복음화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전진

류종길 총장 취임 후 ABHE 가입, 교사(校舍) 구입, 주정부 학위 승인 등 새로운 국면 맞아

미주성결대학(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은 미국에 있는 한인 신학대 가운데서도 젊은 편이다. 2001년 1월에 설립돼 14년의 짧은 역사를 지녔다. 학생 수, 학교시설 등 규모면에서도 작다. 그러나 2011년 6월 류종길 박사가 3대 총장으로 취임한 후 미주성결대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학문적, 신앙적으로 탁월한 교수진의 양질의 강의를 통해 명실공히 우수한 신학대학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특히 2012년과 2013년에는 학교의 앞날을 좌우할 획기적인 사건들이 잇달았다. 2012년 2월 성서대학협의회(ABHE, Association for Biblical Higher Education)로부터 준회원 자격을 획득했고, 같은 해 6월 1만 8천 스퀘어피트 규모의 건물을 구입해 학교의 기반을 닦았다. 다음해 1월 신학과 학사, 목회학, 상담학, 선교학과 석사과정, ESL의 모든 프로그램에 대해 캘리포니아 주정부 교육부(Bureau for Private Postsecondary Education)로부터 학위 인가를 받았다. 2013년 6월에 연방정부로부터 유학생 비자(I-20) 발행을 허가받고 7월에는 연방정부 장학금과 융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리고 이 모든 행정 절차와 교육 수준을 인정받아 지난 6월 미주신학대학원협의회(ATSS,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에 준회원 가입을 승인받기에 이르렀다.

복음 전하지 않고는 살 수 없어

한인타운 인근, 웨스턴과 19가에 위치한 미주성결대 접견실에서 만난 류종길 총장은 인자한 미소로 기자를 맞았다. 그 인자함의 비밀이 무엇일까?

“출세, 성공 때문에 신학을 공부하려 하지 말고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인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먼저다. 미친듯이 ‘왜 아직까지 저 분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야 한다. 사도 바울이 부득불 복음 전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어서 한 것처럼 ‘부득불 복음 전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어서, 받은 은혜 때문에’ 목회를 해야 한다. 30대 초반에 정계로부터 요청을 받았으나 그것을 거절했다. 한시도 복음 전하지 않고 살 수 없는 부득불 개념이 있어야 한다. 두 번째는 지옥 가는 것이 보여야 한다. 그



류종길 총장

게 보여야 목사다. 그러면 명예, 물질에 넘어가지 않는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목사가 되니 무너지는 것이다.”

이 말을 하는 류 총장의 눈에서 영혼을 향한 간절함이 묻어나왔다. 여러 신학이론과 교리의 기본 바탕은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려는, 류 총장이 ‘부득불’이라 표현한, 바로 그 영혼을 향한 사랑일 것이다.

미주성결대가 최근 4년 동안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룬 것도 학생들 한 명, 한 명이 좀 더 안정된 기반 위에서 학업에 임하여 주의 귀한 일꾼으로 성장하길 바라는, 영혼을 향한 사랑 때문일 것이다.

학교가 어려웠을 때 총장으로 추대

북부산교회, 미국 산호세중앙교회, 후암백합교회, 김해제일교회에서 시무한 류 총장은 LA임마누엘신학교에서 목회를 하던 차에 총장으로 추대됐다. 윤석길 교무처장은 “총장님은 한국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하셨다. 4년 전 학교가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웠을 때, 그간 목회자로 훌륭하게 해 오셨고 교단 내 리더십을 지닌 분이셔서 우리 학교를 발전시킬 적임자라 여겨져 추대된 것이다”라고 당시를 회상했다.

학교를 유지, 관리하는 것도 쉽지 않으나 여러 행정 절차를 밟으며 학교를 학교답게 기반을 닦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다. 먼저, 설립된 지 얼마 안된 학교를 이끌며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물었다.

윤 교무처장은 “초기 단계라 학교가 자립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학교를 운영하려면 법적, 학문적으로 갖춰야 하는 기준이 있다. 그것을 하느라 애를 많이 썼다. 류 총장님 부임 후 각종 인가를 획득했다. ABHE 과정을 잘 마치고 올해 마지막 정회원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6월에는 ATS 준회원으로 가입했다. 졸업한 후 사역과 상위 학위 진학에 불이익이 없게 기반을 닦은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학교 안정화에 자체 건물 역할 커

류종길 총장은 건물 구입이 학교 안정에 중추적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건물 구입도 획기적인 것이었다. 건물이 없으면 학교가 불안정하다. 강의실은 이동이 가능해도 도서관은 한 번 자리 잡으면 옮기기 불가능하다. 기본적으로 학교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자체 캠퍼스가 있어야 한다. 총장이 되면서 작은 건물이라도 우리 것을 만들어 움직이지 않는 요소들이 자리 잡게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추진했다. 각국에서 유학생도 오는데 우리가 견고하게 말뚝 박아 놓은 곳이 있어야 한다. 그러한 취지에서 추진한 것이다. 하나님 은혜로 순조롭게 진행됐다.”

훌륭한 교수진도 감점

류 총장은 미주성결대학의 교수진이 학문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검증된 이들을 강조했다.

“우리 학교에 대해 누구든지 인정하는 몇 가지가 있다. 그 중 하나가 교수들의 수준이다. 해당 분야의 전문 학위가 있으며 확실한 복음주의 신학 이념을 지닌 분을 뽑는 것을 원칙으로 정해 놓았다. 이정근 박사(클레어몬트 기독교교육), 윤석길 박사(클레어몬트 신약학), 황의정 박사, 이상훈 박사(이상 풀러 선교학) 등 학문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멘토가 될 만한 분들을 선정했다.”

학문적 실력과 영성이 두루 갖춰진 교수진에게 교육받고 있는 학생들의 반응과 만족도에 대해 묻자 류 총장은 반색을 표했다.

“학교 이념과 설립 취지에도 반영되어 있듯 미주성결대는 학업의 만족도, 강의의 질적 수준에 큰 비중을 둔다. 우리 학교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학교에 들어와 공부하면 잘 들어 왔구나라고 느낀다. 나도 한국에서 강의를 오래했다. 우리 세대 가운데는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박사 학위가 없어도 강의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람이 강의를 하면 학문성이 뒤떨어진다. 그래서 제일 먼저 교수에서 탈락된 사람이 나, 류종길 목사다. 교수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를 뺐다. 우리 학교는 신학학교나 마찬가지로 앞으로 큰 학교가 될 텐데 교수진 수준을 잘 유지해야 내실을 다질 수 있다. 멀리 보면 3~40대 젊은 사람 중에서 영적으로 준비된, 학문적으로 뛰어난 분들을 모셔와 강의하고 있어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다. 또 학생들의 강의평가를 통해 높은 평가를 받은 분들만 계속 강의를 할 수 있게 한다.”

미주성결대는 다양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성적장학금 등 일반 장학금 외에도 교수들이 학기별로 기탁한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하며 토폴 성적이 우수한 자에게는 학비 전액은 물론 생활비까지 지원한다. 신학 전공자에 한해 100퍼센트 장학금을 주기 위한 제도도 구상 중이다.

신학교와 교회의 괴리 방지

선교와 신학의 균형 잡힌 발전은 모든 신학대의 과제일 것이다. 신학이 선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으면 신학은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류 총장은 “우리 학교의 설립 사명

은 교육을 통해 더 효과적으로 선교하는 것이다. 실제적 현장교육, 실천 신학을 강조하고 선교 마인드를 주입한다. 목회의 경험이 풍부하고 선교 경험이 있는 분들이 강의하며 사역을 준비시킨다. 모든 과목의 강의계획안에도 이 교육 이념이 반영된다. 효율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지도자를 배출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말했다.

류 총장은 이 논의를 연장선상에서 신학교와 교회 사이의 괴리문제를 지적했다.

“미국 주류교단은 훌륭한 신학기관을 갖고 있다. 그러나 주류교단의 교세나 신앙적 영향력이 줄고 있다. 신학교가 교회 성장을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나 주류 신학이 그런 위기에 있다. 신학교와 교회 사이에 괴리가 있다. 우리 학교 자체라도 현장과 신학 사이의 괴리를 줄이려 한다. 이론보다 현장이 더 중요하다.”

류 총장은 신학과와 목회학 과정을 위한 독립 캠퍼스를 마련하는 것이 이 학교의 비전이라고 밝혔다. “영성은 한 두 시간 수업으로 기를 수 없기에 기숙사 생활을 통해 영성 훈련을 하려고 구상 중이다. 기숙사에 들어오는 사람에게 장학금 전액을 지원하고자 한다. 그렇게 되면 세계 각국에서 우리 학교 목회학 석사 과정에 들어오고 싶어할 것이고 세계의 한 흐름을 잡아 줄 수 있는 영향력 있는 학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정직성과 도덕성 갖춰야

마지막으로 안티기독교, 종교다원주의에 관한 생각을 들어보았다.

“우리가 우리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교회가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고, 선포되는 말씀과 교회 조직과 시스템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목회하면서 가끔 그런 말을 했다. ‘밥 한 그릇 먹는 걸 보고도 안티세력에게 인정받는 만한 정직성과 도덕성을 준비하자.’ 6.25 때는 안티가 없었다. 고난 받고 순교 당하던 때 오히려 부흥했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 무조건 정직한 사람으로 봤다. 우리 스스로 무너지면서 안티가 힘을 얻었다. 왜 교회가 불투명하고 비자금에 있는가. 어떤 비판 세력이 와서 감해도, 모든 것을 노출해도 흠 잡힐 것이 없게 살자.” 한 주디 기자

보험료를 대폭 낮추었습니다!

가장 싼 자동차 보험 알선

음주운전자들을 위한 특별 자동차 보험

각종 사업체, 화재보험 및 모든 보험문의 환영

24hr 한국어 서비스

굿모닝 보험 213.761.9990 KEVIN YOO

믿을 수 있는 농협 한삼인

창고대 방출

농협 고려인삼 한삼인 서부총판

1-866-902-8282
www.korginseng.com

LA 지부: 3130 W Olympic Blvd #120 LA, CA 90006
T.323.737.8888

Fullerton 지부: 1701 W Orangehorse Ave, Fullerton, CA 92833
T.213.453.6624

홍삼순액

100%홍삼농축액

100g 소비자가	\$90	240g 소비자가	\$185
2개 구입시 \$150		2개 구입시 \$320	
3개 구입시 \$180		3개 구입시 \$555	
4개 구입시 \$230			

30포 \$120
60포 \$180
90포 \$255
120포 \$320

LOS ANGELES ORT COLLEGE

NON-PROFIT ORGANIZATION ACCREDITED BY ACCET www.LAORT.edu

한국인 상담
그레이스 (Grace)
직통: 213.703.6863
Office: 323.966.5444

고소득 직업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저소득층 정부전액 보조금 지급(유자격자) - ESL Program Only -

상담필수 8:30AM~7:00PM

- 시민권 신청
- 저소득층 메디칼 신청
- FREE Food Stamp
- HEAP(Utility Bill Payment)
- Social Service
- WIA, Childcare, Transportation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 방문비자(B1, B2)를 학생비자 F-1으로 변경 가능

유학생은 ORT학교 졸업 후 워크퍼밋과 소셜NO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메디칼 오피스 매니지먼트 학사취득 ... Medical Office management (AA Degree)
- 건축설계 ... Computer Aided Design & Drafting
- 의사보조 ... Medical Assistant
- 약사보조 ... Pharmacy Technician
- 정부 전액보조금지급(유자격자) 학자금 보조 및 융자
- 취업추천 및 직업소개(전문 직업, 높은 취업률 보장)
- 무료 버스표, ORT 학교 장학제도 보유
- ESL ... English as a 2nd Language (ESL)1~6단계, 회화반
-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학사취득 ... Business Management (AA Degree)
- 아카운팅 AAS 학사취득 ... Accounting (AA Degree)
- 그래픽, 포토샵 ... Computer Graphic & Desktop Publishing (Adobe Illustrator)
- 편리한 수업시간 대 : 아침반, 저녁반
- 유학생을 위한 I-20 발급 (이민국 SEVIS 인정 대학, 소셜 넘버가능)
- 교수진 : 전원 남녀 미국인교수

Los Angeles : 643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48 (Wilshire+Lajolla)
Van Nuys : 14519 W. Sylvan Street, Van Nuys, CA 91411 Tel. 818.382.6000

New York : Forest Hills
Chicago : Skokie

약도: Bus 209L, Lajolla, Fairfax, Wilshire

“성경공부할 공간 필요하던 차에 학교 열었죠”

JS드림텍스타일디자인스쿨, 실무교육 통해 전문 원단 디자이너 양성

패션은 인류 역사만큼이나 오랜 역사를 지니며 사람들의 환경에 직접적이고 친밀하게 연관된 분야다. 패션의 가장 기본이 되는 텍스타일 디자인(원단 디자인)은 순수예술과 산업 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이다. 패션의 흐름이 빨라지고 디자인 작업이 세분화되는 오늘날, 텍스타일 디자이너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LA한인타운에 위치한 JS드림텍스타일디자인스쿨(jsdreamtextile.com, 원장 데이빗 리)은 정확한 실무 위주의 디자인 교육을 통해 전문 텍스타일 디자이너를 배출하고 있다.



JS드림텍스타일디자인스쿨의 데이빗 리 원장

우연히 들은 찬양에 눈물 멈추지 않아

어머니를 교회에 모셔다 드리다 처음 교회에 발을 디디게 된 데이빗 리 원장은 힘든 시절 자신에게 들려온 한 노래가 하나님을 찾는 계기가 됐다고 회상한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순복음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 그때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어머니를 모시고 교회만 왔다 갔다 했다. 여의도까지 어머니를 모셔다 드리고 바깥에서 기다리는데 주변에 찬양 소리가 울렸다. 그 소리가 듣기 좋아 그때부터 교회에 들어가서 말씀을 들었다. 성경 대학을 다니시던 어머니를 대신해 숙제를 하기 위해 성경공부를 했다. 이후 호주 유학을 가기도, 미국에 와서도 있고 지냈다. 당시로선 주일에 교회에 나가서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크게 인심을 쓰는 것이었다.”

“그러다 개인적으로 큰 시련이 닥쳤다. 어느 날 컴퓨터를 수리하러 컴퓨터 수리점에 들렀는데 직원분이 ‘컴퓨터 고치면서 안에 노래 좋은 것 넣 어놨습니다’라며 CD를 구워서 줬다. 차를 타고 가면서 들었는데 배송회 목사님의 ‘내가 꿈꾸는 그곳’이라는 노래였다. 노래를 듣는 순간 눈물이 나 프리웨어에 차를 세우고 한참 울었다. ‘꿈도 없이 살았는데 내가 갈 곳이 있구나.’ 이상하게 한 달 동안 울고 다녔다. 그 후에 성경공부를 시작했고, 집사람을 만났다. 결혼하기 전에 성경공부를 같이 다녔다.”

3년 반 공장에서 텍스타일 직접 배워

데이빗 리 원장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그래픽 디자인을 전공하고 광고와 그래픽 디자인을 했다. 89년도에 미국으로 와서 벡타이 디자인을 하다가 텍스타일 디자인 쪽으로 바꿨다. 텍스타일 디자인 경력만 25년이다. “처음 텍스타일 디자인을 시작했을 때 어떻게 디자인해야 프린트할 수 있는 디자인이 되는지도 전혀 몰랐다. 그래서 텍스타일 디자인 공장

취업하면 기본급이 연 4만불 이상이 다. 텍스타일 디자인은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할 수 있는 평생 직업이다.”

텍스타일 디자이너가 되는 데 특별한 소질이나 감각이 요구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즉 과거 수작업으로 원단을 디자인할 때는 그런 소질이 요구됐으나 현재는 작업이 100퍼센트 컴퓨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전만큼 필수적이지 않다.

“많은 분이 텍스타일 분야를 모르니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 소질이 있는 사람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 절대 그렇지 않다. 색깔이 있고 그림을 좋아하고 쇼핑을 좋아하고 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런 소질이 있다. 그것을 끌어내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고 과정이다. 학생의 70퍼센트는 디자인을 처음 배우는 분이다.”

유학생에 실질적인 도움 주는 인턴십

학교는 1년 과정(4학기제)으로 운영되며 강의는 일주일에 2번 한다. 강의 외에는 랩타임시간 즉 개인적인 연습시간을 갖는다. 유학생을 위한 인턴십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다. “보통 한국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인턴 프로그램을 밟으러 오는 경우 돈을 많이 들여서 와서는 자기 전공과 상관없는 일, 예를 들어 자바 시장에서 박스 나르기 같은 일을 하다가 돌아간다. 돈도 얼마 못 받고 아무런 소득 없이 떠난다. 우리 학교에서는 A학점 이상 받고 담당교수가 원하는 정도의 포트폴리오를 정확하게 제출하면 패션회사에서 인턴십 과정을 밟을 수 있게 준비했다.”

“로컬 학생들엔 일자리가 매우 많다. 가구, 홈인테리어 등 텍스타일 디자인이 사용되는 다양한 분야가 있다. 물론 주류는 옷이다. 입학하는 수시로 받는다. 먼저 그 학생이 어느 정도 하는지 평가한 후 그뉘를, 개인별로 지도한다. 컴퓨터, 프린팅 프로덕션, 디자인 지식, 포트폴리오까지 일년 코스다.”

실무 교육 제공하는 유일한 텍스타일 디자인 기관

데이빗 리 원장은 디자인 학교의 특색으로 전문화된 실무교육을 꼽는다.

“전공자나 현재 텍스타일 디자이너로 활동하는 분을 위해 실무에서 필요한 디자인만 가르치는 6개월 과정이 있다. 기초 디자인과 제작과정에 이르기까지 전문적으로 실무 디자인을 교육하는 곳이 우리 학교밖에 없다. 뉴욕의 FIT, LA의 FIDM 같은 패션 전문학교가 있지만 색채학, 예술사, 섬유 제조학, 섬유 염색학 정도만

가르친다. 디자인 실무와는 별로 관계없는 부분을 주로 배운다.”

“유학생 비자를 갖고 있는 학생이 목사님 소개로 배우러 왔다. 저녁 때 레스토랑에서 서빙하며 일 년 넘게 열심히 배웠다. 밤새 서 있어 다리가 통통 부은 채로 공부하러 왔다. 1년을 배우고 3개월 동안 포트폴리오 작품집을 준비했다. 계속 공부를 하며 굉장히 열심히 했다. 지금은 누구나 다 아는 회사에 헤드 디자이너로 있다. 졸업한지 불과 5개월 만에 헤드디자이너가 됐고 회사에서 영주권 신청도 해줬다. 그 친구는 자기 인생이 바뀌었다고 말한다. 이런 분이 거의 대부분이다. 유학생 신분으로 와서 영주권을 딴 학생들이 꽤 많다.”

텍스타일 디자인의 미래

그는 “5년 안에 간소화된 인쇄 시스템이 새롭게 개발될 것이다. 그제나오면 프린팅 업체가 동네 인쇄소처럼 많아 질 것이고 다양한 디자이너가 나올 것”이라 전망했다.

기술학교 선교에 매우 유용해

“앞으로 미국 내 타인종과 유학생도 많이 받을 것이다. 목사님들과 함께 성경도 가르칠 생각이다. 유학생들을 EM에 연결시켜서 영어와 성경을 동시에 배워 선교사로 나갈 수 있게 준비시키고 이들을 통해 일본, 중국에 분교를 세울 계획이다.”

요즘 그는 성경공부를 하면 ‘너는 잠잠하라’는 주의 음성을 듣는다고 고백한다. “힘들다. 기독교인으로서 세상과 교회 양쪽에 발을 딛고 있기 때문에 빚어지는 갈등이 있다. 내면에 크리스천답지 않은 불평, 분노가 있고 또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 자기 이익을 구하는 경우도 많다. 갈등을 넘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다.”

▷ 문의 : 213-505-7170

▷ 웹사이트: www.jsdreamtextile.com

▷ 주소 : 3055 Wilshire Blvd. #860 Los Angeles, CA900107

한 주디 기자

고소득 전문직 취업 교육 ORT 학생 모집

영주권자, 시민권자에겐 학비와 교재비 모두 무료

일 자리를 찾지만 취업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배우기 위한 경제적 여건이 안돼 고민하는 이들에게 기쁜 소식이 있다. 저소득층을 위한 ESL 교육으로 잘 알려진 LA ORT칼리지(Organization for Educational Resources and Technological Traing college)가 다양한 직업 교육 과정과 준학사 학위과정을 통해 졸업생들의 취업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ORT칼리지는 짧은 기간 내 미국의 전문직 자격증을 취득해 고소득 직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의 문을 활짝 열어놓은 비영리 취업 전문 사립 대학이다. 1880년 유대계 이민자에 의해 설립된 135년의 역사와 전통을 지닌 ORT칼리지는 세계 60개국에 9백여 학교를 두고 있다. 미국에는 뉴욕, 시카고에 캠퍼스가 있고 엘에이 월서길에 본교가 있다.

ORT의 특징은 무료교육이다. 연방 정부와 시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아

운영되기 때문이다. 저소득층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라면 정부의 장학금으로 무료로 공부할 수 있다. 교재도 모두 무료로 제공받는다. ORT는 영어 수업 뿐 아니라 어카운팅, 경영관리, 일반사무, 의료관리, 의료보조, 약사보조, 컴퓨터 그래픽, 미디어, 신장투석 라이선스 수업을 제공한다.

오전반(월-금, 8:30~1:20)과 저녁반(월-목, 5:30~9:50)으로 운영되며 단기간에 학위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시간표가 효율적으로 짜여 있다. 전공과목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도 있다. 졸업생들은 현재 일반 병원, 약국, 양로원, 변호사 사무실, 비서직, 일반 기업, 웹디자인, 신문사, 공인회계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한인담당자인 그레이스 이 씨가 한국어 상담을 담당하고 있다. 유학생을 대상으로 1-20도 발행한다.

▷ 문의 : 213-703-6863 ▷ 주소 : 6435 Wilshire Blvd. Los Angeles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호, 이원상,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만규 편집국장 : 맹토마스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망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Payable to order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2014년 가을학기 신(편)입생 모집

학사 (B.A.), 교역학석사 (M.Div.) 과정

“교육의 질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가을학기 개강일 : 2014년 8월 25일

- 온라인 원격강의 개설
- M.Div. 과정 나성영락교회 강의 개설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부설

산타페언어-문화교육원 ESL 과정

“산타페언어-문화원 수업은 공부가 아니라 실력을 쌓게합니다”

가을학기 개강일 : 2014년 9월 8일

- 월별 단과반 수시등록가능
- 맞춤형 수업진행 (1:1 수업, 발음교정, Speech, 영작문 등)
- 2015년 봄학기 개강 : 1월 5일 ~ 4월 17일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

총장 이상명 박사 / 이사장 김인식 목사

- 입학 및 등록 : 본교 홈페이지 www.ptsa.edu '입학정보실' 참조

- 입학관련 문의 : 미국 1-562-926-1023 ext.300 office@ptsa.edu 한국 010-6612-1165 (담당 : 박정환 목사)

- ESL 문의 및 상담 : 강우중 교수 (wj kang@ptsa.edu)

1-20 발행

정회원 ats 준회원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 926-1023 Fax. (562) 926-1025
www.ptsa.edu / office@ptsa.edu

※ Office 임대합니다. (1,300, 900, 800 sqft)

복된 청지기의 삶

누가복음 12:35~48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큰 집의 재산과 살림을 맡아서 그 주인의 뜻대로 잘 관리해 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복된 청지기라 하는 것은 그 주인의 마음에 흡족하고, 생각했던 것 그 이상의 넘치는 성과를 가져오고 또 지혜롭고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수고를 하는 자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 제자들에게 자신을 따르는 수만 명에게, 또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일러주시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애타고 안타까운 간절한 소원의 심정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 이름으로 용서받으면서 성령을 선물로 받고, 이제 믿음으로 무조건 순종하고 충성, 봉사하며 섬기며 살겠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은혜 받은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은혜 받은 사람의 영적 소원대로 살아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염려하시면서 애타는 마음으로 말씀하신 것이 누가복음 12:1-59까지의 교훈으로 대목대목 이제 우리가 짊어질 것입니다.

1. 바리새인의 누룩

말씀을 들었다면 세상 속에서 생활하면서 자신의 삶이 어떠한지, 과연 말씀대로 잘 실천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잘 믿어야 하고 매일 기도하고 말씀 읽고 나아가 전도하고 교회와 선교를 위하여 또,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봉사해야 한다는 생각과 마음은 간절한데 손발이 움직여 지는 행동은 그와 반대로 나타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을 외식(外飾)이라고 합니다. 겉으로만 잘 믿는 척 꾸미기를 힘쓰고 그의 중심의 소원과 실제 행동의 목적은 다른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의 본체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앙인들에게 “잠 믿는 자를 보겠느냐”하시는 말씀은 진짜 인격적인 신앙, 영적으로 사는 신앙,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늘소망을 목적으로 신앙 생활하는 그런 신자를 볼 수 있겠느냐는 뜻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제일 잘 믿고 섬기는 것처럼 했지만 실상은 자기들의 명분과 이속 행하기에 이성을 잃었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 시대의 종교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삼가라 하신 것입니다. 누룩이라는 것은 빵을 만들 때 부풀리게 하는 효소입니다. 이 누룩과 같이 그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행실이 바로 믿겠다는 사람들에게 쉽게 오염되고 전염될까봐 걱정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외식하는, 죽은 심령의 바리새인들을 절대로 본받지 말라는 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2. 인생의 근심걱정에 대한 교훈

너희가 무엇을 먹고 입으며 어느 곳에 살 것인가에 너무 집착하고 몸부림치느라고 영적인 소망을 제쳐놓는 폐단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것은 하늘소망의 주인공 되는 자격을 얻었다는 보증과도 같은 것인데 왜 땅에서 집을 짓고 만년 터를 닦으려는 일들에 집중하고 골몰하느라고 영적인 소망을 흐리게

나 놓치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6절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은 그 생명을 책임지시고 보장하시기 위하여 먹을 것과 살아갈 수 있는 여건까지 다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7절은 영이 없는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건으로 살아가게 하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령 받은 사람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느냐는 말씀입니다. 머리털까지 세심 정도로 세밀하게 우리를 보살피시는 하나님 이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8-9절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사람들 앞에 전도해야 하는 사명을 깨달아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3. 물질에 대한 기대와 영적인 실패

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형이 혼자 차지했다고 불만에 찬 동생이 예수님보고 예수님의 권위로 자신의 형을 꾸짖어서 그 재산을 내게도 좀 나누어주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을 때 예수님은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물질은 유적인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지 영적인 것은 어떠한 것도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분의 자녀가 되어 그분의 맘에 들도록 그분이 기대거실 만하고 사랑하실 만하고 그분에게 요긴한 존재로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성숙된 신앙인의 모습으로 믿음 생활을 잘 해 나가도록 합시다. 그러면 절대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것이 없도록 하나님은 채워 주실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것에서도 능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26절). 27-28절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아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꽃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보나 믿음이 적은 자들아”하십니다. 이 말씀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너희 사는 목적, 영적 소망을 하늘에 고정시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게 하시기 위해 31절에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하시고, 수만 명이 모여 있는 무리를 보시며 32절에 예수님은 “작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모두 하나님 나라에 다 올라가기를 소원한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런즉 너희도 하늘나라 들어갈 그 소망을 목적으로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나눠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돈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에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33-34)”하십니다.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곳에 내 생각이 항상 머물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35절에 허리에 띠를 띠라는 것은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고 일의 성과를 위한 준비 자세를 가지라는 말입니다.

4. 청지기로서의 사명감

등불을 켜고 서있으라는 말씀은 기름과 등불을 예비해서 진리의 빛을 밝히면서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수님 재림을 맞이할 기다림의 자세를 갖추라는 것입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수님을 금방 맞이할 수 있도록 허리를 졸라매고 기름이 꽉 찬 등불을 준비하고 등불을 밝혀 서있으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왔을 때 허리에 띠를 매고 등불을 밝혀 문 앞에서 있을 때 그 주인이 얼마나 기특(奇特)해 하실 것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밤 9시와 12시, 새벽 4시, 시간에 따라 그 주인의 감동은 다를 것입니다. 이렇듯 주인이 왔을 때 깨어있는 종들은 복이 있을 것이라고 4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41-48절까지는 하나님의 교회에 세워진 목자와 봉사하는 파수꾼들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궁금궁금 생겨 “선생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하고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고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집 재산을 모두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는 그 주인의 원하는 대로 잘 관리하는 것이 선한 청지기이며 결국 복된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45절 이하의 말씀처럼 그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하여 육신의 본능적인 기질을 앞세워 먹고 마시고, 취하고 방탕하며 양 무리를 해치고 그들로 하여금 소망 없게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주인 되신 예수님이 오신다면 그 모

습을 보셨을 때 얼마나 놀라고 실망하시고 마음 아파하실 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고 46-48절에 말씀하고 계신 것은 은혜를 많이 주신 이유가 더 많은 사람에게 그 은혜를 나누어 끼치라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열심히 전도하여 나누어주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5. 결산할 때 무엇을 내놓을 것인가?

내어 놓을 것이 없을 때 바깥 어두운 곳에 내쳐져 슬피 울며 이를 갚이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은 것이 자신의 입장에서 기뻐할 일이지만 예수님 입장에서 은혜 받은 이로 하여금 그 은혜로 더 많은 사람이 은혜 받게 해서 그도 은혜 받았던 사람처럼 하늘소망에 결실을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피하여야 하고 또 육신이 먹고 사는 걱정근심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생활신앙을 인정받도록 하여 하나님이 소망 중에 어여뻐 보시고 함께 하심으로 더 많은 은혜로 책임져 주심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건강이 허락하는 때까지 열심히 다니며 복음을 전해야 하고 내게 맡기신 물질이 계속 구령(救靈)의 성과를 위하여 선용(善用)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선한 청지기의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 참으로 사랑스럽고 기뻐해서 잠시도 떠나시기를 원치 않으시며 임마누엘로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 V 한국 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크리스천 투데이	7면 설교 / 동영상 · 인터넷신문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경복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 V 미국 방송 설교		라 디 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토요일 오전 7시	목요일 낮 12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7시 / 동영상 설교 제공
CTS TV	수요일 토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미 국 신 문 설 교			
기독일보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크리스천 헤럴드	인터넷신문 설교 7면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AM1310 기쁜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2014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가능)
 1-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호라이즌대학교
 학위취득 과정 및 학생모집 학과
 학사: 신학/ 상담학
 석사: 신학/ 목회학/ 상담학
 박사: 신학/ 상담학
 CA 주정부 교육국 BPPE 인가
 연방정부 승인 SEVIS 1-20 자체 발행
 520 S.La Fayette Park Pl. #411 LA, CA 90057
 Tel. 213) 736-5000 Fax. 213)736-5115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정회원 인증
 특전: Soles 4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장학제도 있음
 학사과정: 성경학 학사(B.A. in Biblical Studies)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Master of Art in Religion)
 2660 W.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미주대한신학대학
 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정립,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종 양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리더십의 준비.
 1325 12th Ave, Los Angeles, CA. 90019
 Tel. 323-731-9819

솔로몬대학교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28:18-20)
 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어 박사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AMERICAN BAPTIST SEMINARY OF THE WEST, BERKELEY, CA
 L A Campus 목회학 박사과정
 (매년 1, 6월 통역제공, GTU 와 ATS 정회원)
 Dr. Hoi Chang Kim: (213) 268-9367
 hoichangkim@hanmail.net
 Dr. Hyo Shick Pai: drhyopai@gmail.com
 ABSW President: Dr. Paul Martin www.absw.edu

통신신학 *한국상고사(한단고, 규원사학)
 - 신학(학사, 석사, 종교철학박사 전공과정).
 - 한국상고사(교조신, 고구리, 백제, 신라, 발해) 전공은 일제 식민사학 (단군신화)이 아닌 전통역사사 한단고, 규원사학 중심으로 학사, 석사, 박사 단기 완성 가능함.
 *본교는 캘리포니아 Education cord #94874 비영리종교법인(연방 501C3)에 의해 설립된 교육기관으로 한국종교단 미주노회에서 남녀 목사안수 가능함.
 아메리칸 중앙대학교 중앙신학대학원 www.acus-edu.us
 mail, 379 Loa drive #301 L.A, CA 90017 paul Lim : 213-908-8986
 email : acus-edu@hotmail.com / acus1mjeongul@gmail.com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감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사장 김연도 박사(D.P.M.) 총장 김근수 박사(Th.M., Ph.D.)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

미주성결대학교
 한국성결교회 100년,
 미주성결교회 30년,
 미래를 책임지는 미주성결대학교!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i.us

프란시스코 교황 방문이 준 도전



박신욱 목사

프란시스코 교황이 마침내 한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온 나라가 한 주간 몸살을 앓았다고 한 언론이 표현했을 만큼 교황 방문의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교황이 제가 선교사로 섬겼던 아르헨티나 출신이라 그런지 제 개인적으로는 더 관심이 갔던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한국 방문 중에 보여 주었던 교황의 상징적인 행동이나 제스처보다는 그가 여러 집회에서 행한 강론과 연설의 내용에 적지 않게 놀랐습니다. 내용이 다 성경적이고 현실의 여러가지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정확하게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굳건 교황의 한국 방문은 가톨릭교회가 안고 있는 비성경적인 전통들과 신학적인 이슈들은 접고라도, 일반 국민에게는 가톨릭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 준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연일 언론에서 쏟아내는 교황 방문에 대한 뉴스를 접하면서 저는 우리 개신교회가 놓치고 있었던 신앙의 본질적인 요소들이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2천년 전 초대교회는 백성들의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는 세상의 조롱거리처럼 되어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개신교회 안에도 아름다운 선행과 세상에 본이 되는 사역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회의 내부적인 갈등만 언론을 통해 화자되면서 한국 사회는 개신교에 등을 돌리는 처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내에 일어났던 첫번째 문제는 아니나 부부와 같은 개인주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앙의 본질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두번째 생겨난 문제는 공동체의 문제로 원망하는 히브리파와 헬라파 과부의 구제 문제로 원망하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분당은 공동체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두가지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제사장의 허다한 무리까지 하나님께 돌아오는 부흥을 계속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이 문제를 교회가 해결하지 않으면 교회가 세상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순전하고, 공동체로서 성도 사이의 관계가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룰 때 교회는 세상을 향해 사명을 다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날 것입니다.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구제와 아직도 복음을 받지 못한 민족들을 위한 선교가 교회가 연합하여 해야 할 본질적인 사역입니다. 그럴 때 세상은 감동하고 교회가 전하는 복음에 마음의 문을 열 것입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어디에서 넘어졌는지 돌아보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또 우리 이민교회로부터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새로운 부흥의 물결이 시작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반주자 청빙

자격: 세례교인으로 피아노 전공자
미국 취업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제출서류: 이력서, 신앙 간증문
보내실곳: info@sunhanchurch.com
문의: 선한목자장로교회 사무실
626-965-3443

* 서류는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1816 S. Desire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 . 성경교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와 성경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성경공부를 통해 영성과 인성교육을 하며, 골프를 통해 집중력과 체력향상을 시켜줍니다. 귀한 자녀에게 이 두 가지를 함께 가르치는 전문인에게 믿고 맡겨주십시오. 달라지는 자녀의 모습을 보게 되실 겁니다.

* 픽업가능

- 성인을 위한 무료 골프교실도 오픈합니다. (성경공부 필수)
- 문의 : 최 제이콥 Professional (310-598-0746)
- Email : mrjacob601@hotmail.com

<최 제이콥>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ew Bridge University Golf Management
The Reformed University 대학원
Dae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선교학 Ph.D

젊은이와 노인의 차이점은 여러 면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무엇보다도 생각이 발달합니다. 걸음걸이도 가볍습니다. 지질 줄 모릅니다. 치료와 회복이 빠릅니다. 식사의 양이 엄청납니다. 호기심도 많고 해보고 싶은 일도 많습니다. 생각보다 덜 이기적이어서 다른 사람들 일에 자주 참견합니다. 믿음만한 지도자를 만나면 강렬한 응징력이 생기고 집단적인 행동을 합니다.

젊은이와 노인을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둘 사이의 옷 입기가 다릅니다. 젊을수록 몸에 꼭 끼는 옷을 좋아합니다. 청년들의 양복 옷재고리도 단추가 하나만 달려있어서 가슴 근육을 더 돋보이게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조금 들어 중년이 되면 푼푼한 옷을 즐겨 입습니다. 여성들도 펄퍼진한 통치마를 즐겨 입습니다. 그러다가 60이 지나면 아예 몸에 끼는 옷은 멀리하게 됩니다. 어느새 너그러움이 좋은 나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너그러움은 옷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성품에서도 나타납니다. 스트레

너그러움



김영길 목사
감사한인교회

면 불과 10미터 차이인데도 더 가까운 길로 가라고 엄중(?) 음성으로 명령합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조금 먼 길로 가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하기 때문에 자주 그 음성을 무시하곤 합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을 사는 동안에도 아랫길로 가거나 윗길로 가거나 가는 사람의 생각과 느낌만 조금 다를 뿐, 결과는 대동소이(大同小異) 할 때가 있습니다.

조금 너그로우면 가는 길에 펼쳐지는 경치의 아름다움을 놓치지 않습니다. 조금 너그로우면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을 즐길 수 있습니다. 고집 센 사람의 고집이 독특해 보이고, 우유부단한 사람의 나약함도 나름대로 가치가 있으며, 조금 모자란 듯 살아가는 사람에게서도 놀라운 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진정한 "너그러움"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조로 믿고 그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만이 소유하고 즐길 수 있는 덕스러운 성품입니다. 나이가 들기 전에 이런 너그러움을 소유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우등생 만들기



제이슨 송 교장
새언약초중고등학교

이 있다. 이 부분 또한 저자의 연구 결과인데, 저자는 다음과 같은 지침을 통해 부모가 자녀를 도울 수 있다고 말한다. ▲다른 아이와 비교하지 말라. ▲"공부하라"는 잔소리를 할 때는 틀에 박힌 이야기를 삼가라. ▲TV 드라마보다는 책을 읽는 모습을 자주 보이라. ▲아이를 외롭게 하지 말라 (혼자있게 하지 말라). ▲교재가 어렵더라도 목차의 내용 정도는 부모가 가끔씩 훑어보라. ▲아이의 의사를 존중하라. ▲아이 앞에서 선생님을 흉보지 말라. ▲신경질을 무작정 다 받아주지 말라. ▲아이의 시간 관리를 위해 무엇을 해 줄 수 있는지 찾아보라. ▲칭찬을 아끼지 말라.

그런데, 이 '심계명'은 절대 낫는 것이 아니다. 얼마나 많은 강사들이 세미나를 통해 이런 점들을 다루고 있는가? 얼마나 자주 지면을 통해 이런 내용에 관한 글을 읽을 수 있는가? 하지만 얼마나 많은 부모가 귀를 기울이고 실천하고 있는지는 불투명하다. 우등생을 만드는 것보다 우선 좋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좋은 학생은 좋은 부모, 좋은 선생, 올바른 동기부여, 그리고 규칙적인 습관을 통해 만들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라. 이제 새 학년, 새 학기를 맞이하여 최선을 다한 결과에 만족하는 부모, 교사, 그리고 학생이 되어보자. 자랑스러운 우등생, 최선을 다해서 부끄럽지 않은 학생을 배출하자.

은 점수를 얻기 위해 컨닝도 하고 친구의 숙제를 베끼기도 하며, 별 생각 없이 표절을 범하기도 한다. 부모의 그릇된 요구가 자녀로 하여금 그릇된 결정을 내리게 한다면 이것은 모순이요 큰 문제이다.

노력해서 명문대학에 진학하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지나치게 사교육을 의지해 진학하는 것은 그 방법과 목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리고 진학 후 모든 교육과정은 잘 마치고 졸업할 확률도 떨어진다. 대학 진학은 학생의 실력, 대학에서 제공하는 전공분야, 부모의 재정지원, 원하는 거주지역 등의 요소를 충분히 고려한 후 가장 적합한 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 무조건 인지도 높은 대학을 추구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과 동기로부터 시작된다.

앞서 언급한 책 끝 부분에 "내 아이 우등생으로 만드는 심계명"이란 섹션

수년 전 "대한민국 우등생"이란 책을 읽을 기회가 있었다. 이 책의 저자는 한국의 명문대생 250명을 연구하여 이들의 특별한 진학 노하우를 밝혀려고 했다. 하지만 저자는 '비법'을 찾을 수 없었고, 오히려 "복습을 정기적으로 했다", "암기에 시간을 투자했다", "스케줄을 잘 관리해서 공부했다", "노트를 잘 정리했다", "목표를 두고 공부했다" 등의 지극히 당연한 답만 얻게 되었다. 결국 저자는 우등생들의 특별한 노하우란 없으며 "모두에게 통용되는 만능 공부 방법이란 없다"란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이미 세상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 연구를 통해 검증되었다는 점이 좀 아이러니하다.

공부에는 지름길이 없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학부모는 지름길을 찾기 위해 허다한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있다. 요즘은 학원 외에도 '명문대학 진학 설계사'와 '작문 코치' 그리고 인터넷(면접)을 준비시켜 주는 곳도 있다고 한다. 꼭 그렇게 해야만 명문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가? 아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꼭 그런 방법을 택해야 하는지 부모는 심각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지나친 부모의 '열정'은 학생으로 하여금 잘못된 '지름길'을 찾도록 만들기도 한다. 사실 컨닝하는 학생 중 다수는 점수에 아주 예민한 학생들이며 어떻게 해서든 좋



세금무료상담

확실히
줄여드립니다!!

이정운 CPA

- 개인 및 사업체에 맞는 절세
-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서비스 및 고객 데이터베이스 구축
- IRS, FTB, SBOE, EDD 세금문제해결
- 저소득층 세금환불(EITC)
- ITIN(개인납세자번호)신청 및 공증
- FAFSA, 소셜연금, 해외자산신고 상담
- 정확한 서비스와 저렴한 수수료

Tel (213)387-2004

www.cyleecpa.com

3130 Wilshire Blvd. Ste 405, Los Angeles, CA 90010

Tax season 연장근무!!
(평일 9 am - 8 pm, 토요일 10 am - 5 pm)
(무료주차!! Free Parking!!)



혈액 해독 / 기력회복 천연 항염, 혈관 탄력 심장, 뇌 혈전용해 뼈, 골수 영양공급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 세트

- 좋은 흙에서 나온 식물성 원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믿을 수 있습니다.
- 체내 흡수가 빠르므로 복용 효과가 높습니다. (1-3일 내)
-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혈액 내에 영양을 공급하여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함으로서 무슨 병이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 세계 특허(특허번호 51281391) 공법으로 제조되어서 복용 후 체내 흡수율이 다른 제품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흡수율 92-96%)
- 셀라케어의 모든 제품은 남녀노소 모두 복용가능합니다.

권장소비자가격: \$184/병

눈으로 직접 확인 하세요! 병치료와 장수의 시작은 피를 맑게 하여 알칼리화 시키는데 있습니다



셀라케어 제품은 6년 경작후 1년 휴지기를 지키면서 유기농으로 재배한 작물을 엄선하여 우리몸에 흡수가 잘 되는 알칼리성으로 만듭니다. 많은 영양제중 M3만이 알칼리 테스트(PH Test)에서 최고 품질 보라색으로 변합니다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 셀라케어
SELLA CARE®

셀라케어 효능사례

무슨 병에 걸렸는지 큰 효과를 줄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발작, 자폐증, 무감각증	시력장애인으로 태어나 무감각증으로 폐인 상태. 셀라케어 복용 후 완치되어 등산도 다닐 정도입니다. 방세환(20세, 원주) 010-5599-2633
대장암 말기	대장암 말기에서 간으로 전이된 상태, 2달 복용후 정상으로 회복됨
위암 3기	카이저 병원에서 수술을 권했는데 M3셋트를 3개월 먹고나서 암수치 1.36으로 정상으로 돌아와서 수술을 하지 않게 되었음. Mr. 박(72세, 엘에이) 213-268-8381
심한 부정맥, 해소, 천식	심장수술을 받은 분으로 3일 복용 후 상태가 많이 호전됐음. 30년이상 기관지 천식과 심한 부정맥으로 고생했으나, 셀라케어 복용 후 정상으로 돌아옴. 박옥현(77세)
유방암 완치 후 모유수유	오른쪽 유방암으로 간, 폐, 골수까지 전이된 상태에서 두 달 동안 많은 양의 M3셋트를 주스에 같이 복용 후 심한 호전 반응 겪고 완치됨. 그후 4년뒤 늦둥이를 출산하여 지금 모유수유를 할 정도로 완벽. 양호연(42세, 엘에이) 213-215-6991
간질과 약물중독	16년동안 하루에 몇번씩 간질을하여서 사회생활을 제대로 못했는데, 지금은 직장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함. 간질제에도 호전됨. 복용 후 190kg가 125kg로 되고 시력, 피부, 머리카락 좋아짐. 오윤희(26세, CA가디나) 213-604-1992
직장암, 대장암 말기	처음에 수술이 불가능하였으나, 복용 후 대장암에 있었던 숙변이 피와 함께 쏟아지면서 몸에 있던 큰 혹들이 줄어들며, 복용 후 6개월 후에는 깨끗하게 치료됨. 이순남(77세, 엘에이) 323-533-0624
심한 아토피	6년동안 심한 아토피로 고생이 심했는데 복용 1개월 후 부터 피부가 깨끗해지며 정도 잘 자고 키도 많이 컸고 정신적으로 많이 안정이 되었음. 에스터 양(10세, 산타모니카) 213-215-6991
대장암	대장암 초기판정을 받았고 병원 치료를 받던 중 M3셋트를 먹기 시작, 수술하지 않고 복용 석달 후 완치 되었음. 한국 010-7928-7986
비만, 우울증, 야뇨증	아려서부터 심한 비만으로 11세에 체중이 190파운드 였으나 셀라케어 복용 2달후부터 살이 빠지기 시작 하면서 현재는 130파운드로 유지됨. 우울증, 야뇨증이 깨끗하게 치유 되었음. 샘 양(15세, 엘에이) 213-219-7746
심한 당뇨, 고혈압	30년된 고혈압과 당뇨로 매일 약을 먹던 중 M3셋트 복용 후 4개월이 지나면서 혈압과 당도가 정상으로 되었고, 절단직전의 다리과 온몸의 검은 피부가 회복되었음. 오일동(52세, 가디나)
심한 알라지, 우울증, 불면증, 녹내장	코막힘과 콧물로 밤을 새우는 고통 중 M3셋트 복용 3달 후 완치. 심한 심장 압박과 하지정맥까지도 치유됨. 정수지(61세, 베버리 힐) 310-800-8242
심장병, 담석, 전립선	10년 동안 고혈압과 밤마다 잦은뇨와 다리가 저려서 고생했는데 셀라케어 복용 후 약성 변화와 혈압이 정상으로 되고 담석으로 인한 고통도 사라졌습니다. 마사루(58세, 부산)
심한관절염, 변비, 생리통	손가락이 심하게 아파 소염 진통제로도 잘 안들었으나 셀라케어로 통증이 가셨고 변비도 해결 되었으며, 큰 딸의 생리통과 우울증도 사라졌음. 황정희(39세, 팔로스버디스)
중풍마비, 당뇨, 고혈압	15년 동안의 고혈압, 당뇨를 딸의 권유로 셀라케어 복용 후 7개월 만에 고혈압, 당뇨, 왼쪽 마비도 정상 회복됨. 민현숙(65세, 방배동)
등 수술후 심한 손떨림	바이러스 침투로 인한 등 수술 후 8년 동안 심한 손 떨림으로 고생중, 복용 일주일 후 부터 혼자 밥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손 떨림이 없어지고 안정됨. 박성섭(63세, CA 토렌스)
자폐증	가족과 의사 소통이 되지 않으며 손발이 항상 차고 손발끝이 너무 같이 딱딱 했는데 복용 열흘 후 부터 손발이 따뜻하고 부드러워 졌으며, 가족과 의사 소통이 가능 해지고 상태 좋아짐. 정대선(16세, 엘에이)
체장암 말기	60세 중년에 가장 힘들다는 체장암 말기로 병원에서 두 달 시한부 선고를 받고 M3셋트를 복용하고 2개월이 지나면서 부터 기적으로 체장의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왔음. 피터 리(65세, 엘에이)
폐암 말기	50세에 찾아 온 암으로 고통 받던 중 복용한지 한달 20일 후 부터 암 수치가 3.5cm에서 1.2cm로 작아지면서 좋아지기 시작하여 5개월 후에는 암 크기가 30%로 작아졌음. 이정수(51세, 서울)
자가 면역 질환	허구병으로 부종, 부분적인 감각 상실, 지속적인 종기, 결국은 폐가 굳어지는 불치병으로 M3복용 3일 후 피검사 결과 혈액수치 정상으로 나온 후 한달 복용 후 모두 정상으로 돌아옴. 미세스 락(뉴저지)
모유 아주적음, 심한부종	모유수유가 안되어 애를 먹었는데, 셀라케어 복용 후 모유가 더 잘 나오며 심했던 부종이 눈에 띄게 좋아졌으며, 신생아도 변을 잘 보고 잘 자고 푹들해졌음. 이은영(32세, 세리토스)
혈액투석	1주일에 3번씩 2년 6개월동안 혈액투석 해 왔는데, 2달 복용 후 혈액투석 횟수가 점점 줄었고, 지금은 혈액투석을 아니함. 장영순(53세, 한국 서울)
중풍으로 인한 마비	심한 중풍 후유증으로 고생하며 인생 말년에 찾아온 병으로 비관하며 좋다는 약을 찾던 중 M3셋트를 알게되어 복용 한지 3개월 후 부터 서서히 중풍으로 인한 마비가 풀려 너무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음. 김정훈(76세, 한국 대구)
임파선암	2년전 임파선 암 수술했음. 셀라케어 복용 후 한 달 20일만에 왼쪽 가슴 유두에서 피고름이 나왔으며, 지금은 키모를 받지 않아도 될 정도로 회복 됨. 조인숙(53세, 시카고)
갑상선암과 심한 관절염	13년동안 심한 관절염으로 신문 한창도 들기가 어려웠고 밤에는 불면증으로 고생. 셀라케어 한달 복용 후부터 심했던 통증이 차차 가라 않고 갑상선도 정상으로 회복 되었짐. 김정연(39세, 다이아몬드 바)
전립선암과 부정맥	소변이 힘들고 밤에는 7번씩 소변을보았으며, 심한 부정맥으로 고생 하였음. 복용 2달만에 밤에 화장실 가지 않게 되고 혈액 검사 때마다 혈관 찾기가 힘들었으나 지금은 혈액 흐름이 원활하여 계속 복용하고 있음. 필립 남(72세, 벨리)
파킨스 병	3일 복용 후 몸이 가벼워지며 계속 복용하면서 자유로운 외출과 친양 사역자로 다시 일할 수 있을 정도로 되어 지금은 외출을 두려워하지 않게 됨. 브라이언 김(70세, 버지니아)
반신불수	목사님 이었고 5번의 뇌수술 후 반신불수가 되었는데, 복용 2개월만에 지팡이도 버리고 걸어도 되고 있음. 왼쪽 마비도 많이 풀렸음. 최정석(50세, 엘에이)

건강과 성경 이야기 17

머리카락처럼 가는 모세혈관이 우리 몸의 구석구석에 도랑처럼 퍼져 있는데 이 혈관 속을 혈액이 흐르면서 60조 개나 되는 각각의 세포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고 이산화탄소와 갖가지 독소들을 간과 콩팥으로 운반하여 몸 밖으로 내보내는 일을 합니다. 모세혈관이 튼튼하고 혈액이 깨끗하면 온 몸이 건강한 것이고 모세혈관이 병들어 있으면 온 몸이 병들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옛말에 혈액이 순조롭게 잘 흐르면 만병이 스스로 물러가고 혈액이 잘 흐르지 않으면 백 가지 병이 저절로 생겨난다고 하였습니까?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낚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로 도망하려 하여 음 바로 내려가더니 마침 다시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낚을 피하여 함께 다시로 가려고 선기를 주고 배에 올랐더니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서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그랬더니 선원들이 요나에게 너는 누구며 왜 이 재앙이 우리에게 왔는지 말하라고 합니다. 9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느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여 도망치게 되었으니, 나를 바다에 던지면 파도가 그칠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큰 물고기 배속에서 3일간 있 으면서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런 후에 나는 위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게 되고, 그 민족은 회개를 하여서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요나의 마음속에는 그 민족을 미워하는 마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뜨거운 햇빛을 피할수 있는 박영콜로 요나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었다가 사들게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4장10-11절 "여호와께서 가리사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낚다가 하룻밤에 망한 박영콜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을,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십이만여 명이었도 육속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할런지 아나하나" 라고 말씀하시며 요나서를 마치고 계 됩니다. 요나서에 나오는 큰 물고기는 아마도 고래 일종 같기도 합니다. 고래도 새끼를 낳은 후에는 엄청난 량의 미역을 먹는데, 이 미역에는 요오드라고 피를 정화시켜주는 성분이 있습니다. 얼마전에 신장투석을 2년동안 1주일에 3번 하였던 분이 기적의 영양제 M3를 2달 복용하시고 더이상 신장투석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병원의 진단이 나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와 같은 병을 가지신 분들과 혈액에 관련된 병이 있는분들이 기적의 영양제 M3를 드시고 아주 큰 효과를 보셨습니다. 무슨병에 걸렸는지 큰 효과를 주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 유태인 특수영양제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 드립니다. 무료건강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구입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낚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로 도망하려 하여 음 바로 내려가더니 마침 다시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낚을 피하여 함께 다시로 가려고 선기를 주고 배에 올랐더니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서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그랬더니 선원들이 요나에게 너는 누구며 왜 이 재앙이 우리에게 왔는지 말하라고 합니다. 9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느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여 도망치게 되었으니, 나를 바다에 던지면 파도가 그칠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큰 물고기 배속에서 3일간 있 으면서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런 후에 나는 위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게 되고, 그 민족은 회개를 하여서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요나의 마음속에는 그 민족을 미워하는 마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뜨거운 햇빛을 피할수 있는 박영콜로 요나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었다가 사들게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4장10-11절 "여호와께서 가리사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낚다가 하룻밤에 망한 박영콜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을,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십이만여 명이었도 육속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할런지 아나하나" 라고 말씀하시며 요나서를 마치고 계 됩니다. 요나서에 나오는 큰 물고기는 아마도 고래 일종 같기도 합니다. 고래도 새끼를 낳은 후에는 엄청난 량의 미역을 먹는데, 이 미역에는 요오드라고 피를 정화시켜주는 성분이 있습니다. 얼마전에 신장투석을 2년동안 1주일에 3번 하였던 분이 기적의 영양제 M3를 2달 복용하시고 더이상 신장투석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병원의 진단이 나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와 같은 병을 가지신 분들과 혈액에 관련된 병이 있는분들이 기적의 영양제 M3를 드시고 아주 큰 효과를 보셨습니다. 무슨병에 걸렸는지 큰 효과를 주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 유태인 특수영양제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 드립니다. 무료건강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구입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입니다. 감사합니다.

셀라케어 제품은 유태인 코셔인증의 고급 유기농 원료로 만든 미국제품으로 미국 FDA인증의 GMP생산물입니다. www.sellacare.com

본사(LA)	213.435.9600	뉴서울호텔 (팔달)	213.386.5310	플러튼 베스트케어약국	714.670.7979	뉴욕-뉴저지 (동부총판)	201.983.8333
시온약국	213.382.6485	LA별론 마틴약국	213.382.9718	에나하임	714.469.5809	버지니아	703.684.9199
LA 아드모아약국	213.385.2135	LA별론 갤러리아마켓약국	213.388.4100	다이아몬드바 JJ 약국	909.595.4003	시애틀	206.331.6655
LA 한국마켓약국	323.464.3925	가주건강종합백화점	213.388.0091	H 마트 내 H 헬스 (다이아몬드바)	909.594.6370	씨애틀 (건강마을)	206.229.5466
LA 베스트약국	213.385.9926	가디나	714.351.0440	랜초쿠카몽가	909.987.9500	세크라멘토, 아리조나	602.332.6492
우리약국 (우리종합병원내)	213.384.6323	글렌데일 한국마켓 약국	818.637.7708	얼바인	949.330.9009	센루이스, 캔사스	314.570.9629
에스약국	323.733.7788	벨리	818.642.8223	H 마트 내 H 헬스 (얼바인)	949.251.0193	하와이(생약촌)	808.947.8086
올림픽갤러리아마켓약국	323.733.7200	벨리 소망 약국	818.832.2757	놀렉 H 마트 리빙헬스	562.402.8859	하와이 총판	808.359.3376
LA 다운타운	213.798.3333	오렌지카운티	714.795.1540	파이오니어약국 (세리토스)	562.402.6972	시카고 서울마켓 (헬렌)	847.877.6346
LA시온마켓엄마손약국	213.739.3030	부에나파크 종로로리기구	714.530.8275	세리토스 그린라이프	562.402.6970	조지아 (발아건강식품)	770.457.1717
LA 6가 버질약국	213.384.1200	가드그로브 건강마을	714.636.2588	그린랜드 건강헬스 (그린마켓 내)	626.839.2868	텍사스 (로얄백화점)	972.620.2900
LA 사랑방	213.351.9552	시온마켓 내 시온헬스	714.730.2707	로랜하이츠	626.912.5727	플로리다	770.457.1717
LA내쳐영양센터	213.739.8874	플러튼 내쳐영양센터	714.690.0120	지구촌약국 (H마트 내)	213.820.1469	캐나다	604.872.1669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라(요15:7)

한영훈 대표회장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 구원 위해 한국교회 쓰셔”

광복 69주년 및 건국 66주년 기념예배 통해...한국교회연합 선언문 발표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한영훈 목사

한국교회연합의 한영훈 대표회장이 8.15 광복절 예배를 통해 “나라와 민족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들어쓰셨다”라고 강조했다.

한국교회연합(한교연)과 세계한인 기독교총연합회(세기총)는 15일 오후 7시 30분 용인 성민수양관에서 ‘한국교회 순교자 유가족 돕기’ 광복 69주년 및 건국 66주년 기념예배를 드렸다.

한교연 사회위원장 김정훈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예배는 제1부 식전행사(축복교회 연합찬양단)에 이어 한교연 한영훈 대표회장장과 세기총 장석진 대표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황이춘 목사(세기총 상임회

장)의 대표기도, 송병기 목사(세기총 서기)와 김사랑 집사(배우)의 성경봉독, 예다미합창단의 찬양에 이어, 김명혁 목사(한교연 명예회장)가 ‘화해와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며’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 한국교회순교자기념사업회 사무총장 이응삼 목사가 인사하고 우순태 목사(세기총 남북평화통일위원장)의 헌금기도 후 김보성 집사(배우)가 헌금송을 부르고 김요셉 목사(한교연 초대 대표회장)와 박위근 목사(세기총 초대 대표회장)가 각각 축사를 전했다.

한기총 한영훈 대표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일제 36년 동안 한국교회는 고난당하는 민족과 함께 해왔으며, 한국교회는 도탄에 빠진 나라와 민족을 구하기 위해 분연히 일어나 독립 자주운동의 선봉에서 서서 일제와 싸웠고, 그 과정에서 많은 믿음의 선열들이 거룩한 순교의 피를 흘렸다”면서 “하나님께서서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한국교회를 들어 사용하셨다”고 강조했다.

한 목사는 이어 “오늘의 한국교회는 사회 앞에 지도력을 상실하고 말았다”면서 “교회를 향한 사회의 존경

과 신뢰가 추락하고 비난과 불신이 팽배해지면서 한국교회는 선교 2세기에 들어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는데 그 책임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한국교회의 위기는 곧 한국사회의 위기이며, 대한민국의 위기이지만 교회가 바로 설 때 우리나라도, 사회도 바로 설 수 있다”면서 “그동안의 나태와 자만에서 벗어나 부단히 스스로를 개혁하고 갱신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맡기신 사회적 책임과 섬김을 다할 수 있고 다시 한 번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주역으로 우뚝 서자”고 역설했다.

이날 두 단체는 광복 69주년 선언문을 발표하고 “지난 날 한국교회가 고난 속에서 민족의 등불이요 희망이 되었던 것은 복음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친 순교자들의 거룩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며 “일제의 신사참배 거부로 이 땅에 뿌려진 신앙 선열들의 순교의 피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조국 광복을 허락하시고 세계교회사에 유례없는 부흥과 성장을 한국교회에 주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선언문에서 “그러나 8.15 광복은 과거에 완료된 사건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제도적인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아우르는 조화와 타협 정신이 실종된 채 갈등과 반목을 거듭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났듯이 우리 사회는 인명 경시와 불신 풍조가 만연하고 정치권의 대립과 해묵은 지역주의, 세대와 계층, 보수 진보 간의 간격이 국민 통합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의 거듭된 역사 왜곡과 독도 영유권 야욕에서 드러난 군국주의의 부활이 북한의 핵무장과 함께 세계 평화를 위협해 자칫 한반도가 또 다시 세계의 화약고가 될 수도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의 패권주의가 충돌할 경우 자칫 8.15 광복의 역사마저 거꾸로 돌릴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들은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역사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해야 한다”면서 “빠져진 자성과 섬김과 나눔, 상생과 희생을 통해 미완의 광복을 완성해 나가자”고 호소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강요셉 목사(한교연 공동회장)가 ‘광복 69주년 및 건국 66주년 대한민국을 위하여’, 박요한 목사(한교연 법인이사)가 ‘남북 평화통일과 천만 이산가족을 위하여’, 원종문 목사(세기총 공동회장)가 ‘지역세대계층 간 갈등 해소와 국민대화합을 위하여’, 김바울 목사(한교연 공동회장)가 ‘한국교회 일치와 연합을 위하여’, 이병용 목사(세기총 상임회장)가 ‘한민족 복음화와 세계선교를 위하여’, 송금자 목사(한교연 공동회장)가 ‘순교자 유가족과 고난당하는 이웃을 위하여’ 각각 특별기도를 했다.

이어 정서영 목사(한교연 공동회장)와 최낙신 목사(미기총 차기대표회장)가 8.15 광복 69주년 선언문을 낭독하고 대표회장 한영훈 목사가 한국교회 순교자기념교회에 성금을 전달하는 순서를 가진 후 애국가 제창에 이어 박희소 목사(세기총 고문)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무리했다.

예배에 앞서 김윤기 목사가 소장한 사진들로 구성된 일제 만행 사진전도 열렸다.

장세규 기자

살신성인故 김진규 목사 유가족 돕기 사랑의 콘서트



이번 '사랑의 콘서트'는 8월 31일 주일 저녁, 당진동일교회(담임 이수훈 목사)를 시작으로 10월까지 서울, 경기, 충청권 교회를 순회하며 열리게 된다.

지난 2월 16일 이집트 동북부 시나이 반도 타바 인근에서 폭탄테러가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성지순례 중이었던 진천중앙교회 성도들이 피해를 입었고 3명이 사망했다.故 김진규(35)목사는 이 성지순례에서 가이드로 참여했고 테러의 한가운데서 현지 가이드인故 제진수 씨와 함께 피관을 온몸으로 막아내며 수많은 사람들을 구해냈다.

故 김진규 목사. 그는 사도바울 같이 되기를 다짐했던 선교사 지망생이었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생명을 바칠 각오로 나아갔던 주님의 제자였다. 선교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요청에 기꺼이 참여했는데 그것이 생의 마지막 사

역이 된 셈이다. 그의 희생은 눈물겹도록 따뜻했다.故 김진규 목사의 아내인 박여진 사모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테러로 무슬림들을 미워하는 마음들이 사람들 가운데 생기면 어쩌하나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항상 남을 위해 앞장섰던 목사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라며 답답히 말했다. 몇 달이 지난 지금故 김진규 목사의 희생은 잊혀지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남겨진 박여진 사모와 4살 된 딸 아영이의 아픈 가슴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안아줘야 할 책임을 한국교회가 피해서는 안되겠다.

이에 기독교전사운동연합(이하 기전연)은 자신의 몸을 던져 성도들의 생명을 구하고 희생의 길을 간故 김진규 목사의 헌신의 삶을 나누며,故 김진규 목사 유가족 돕기 '사랑의 콘서트(아름다운 동행)'를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추진위원장 김영배 장로(신성대학교 교수)는 “故 김진규 목사는 목숨을 던져 주님의 사랑을 실천한 이 시대의 진정한 선교사였다”며 남겨진 그의 가족을 우리 성도들이 결코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사랑의 콘서트'는 8월 31일 주일 저녁, 당진동일교회(담임 이수훈 목사)를 시작으로 10월까지 서울, 경기, 충청권 교회를 순회하며 열리게 되며,故 김진규 목사의 희생을 기리고 유가족을 위로하게 된다.

행사를 기획한 기독교전사운동연합은 2011년에 설립된 단체로 목사, 크리스천 음악인, 찬양사역자, 대학교수, 법조인 등 200여 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목회자 유가족들을 돕는 다양한 사역(목회자 유가족 및 은퇴목회자 생활자금 지원, 장학금 조성, 장례 서비스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여러 교회와 기관들의 참여와 후원을 기다리고 있다.

문의 : 010-8411-3356(한국) 이수민 기자

광림교회, 영국 웨슬리채플과 파트너십 맺어

영국 런던 웨슬리 채플은 1778년 존 웨슬리 목사가 세운 세계 감리교회의 모교회이다.

웨슬리 목사는 1738년 5월 24일 올더스게이트에서 있었던 모라비안 교도의 집회에서 회심한 후, 무어필드에 있었던 영국 군대의 포 창고를 임대해 파운드리 채플(Foundry Chapel)을 세우게 되는데, 40년 동안 이곳이 영국 감리교 운동의 본부가 된다. 임대 기간이 끝난 후 웨슬리 목사는 1778년 런던 시티로드에 감리교 신앙의 근원지라 할 수 있는 지금의 웨슬리 채플을 세웠다.

광림교회의 웨슬리 채플 인턴십은 김선도 감독과 웨슬리 채플의 담임자인 레슬리 그리피스(Leslie Griffiths) 목사의 깊은 우정 관계에서 시작되었다. 광림교회는 매년 부목회자를 웨슬리 채플로 인턴십 과정에 보낸다.

김선도 감독을 매우 존경하고 있었다는 레슬리 목사는 “김 감독의 순수하고 온전한 믿음과 열정의 결실인 광림교회를 통해, 한 시대에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내신 하나님의 역사에 크게 감동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나 김선도 감독은 영국 감리교회가 세계 감리교 신앙의 원천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근원지가 영적으로 쇠퇴해 가는 것을 몹시 안타깝

게 여겼다고 한다. 때문에 김 감독은 ‘그 원천이 마르면 지류인 한국 감리교회나 미국 감리교회 역시 쇠퇴할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영국 교회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생각했다고 한다.

그래서 김선도 감독은 웨슬리 채플 안에 있는 감리교 박물관 리모델링을 광림교회에서 지원하도록 해줬고, 웨슬리 채플과의 교환 인턴십을 통해 한국 감리교회의 영성을 영국 교회에 보여주어 새로운 도전을 주고자 했다.

지난 5월 광림교회 김정석 담임목사가 웨슬리 회심 주간엔 웨슬리 채플에 다녀 왔을 때, 영국 감리교회의 연회장과 임원들이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갖게 됐다.

김 목사는 현장에서 영국 감리교회의 부흥의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 연회 임원들과 거침없이 의견을 개진했다고 한다.

광림교회 측은 “교회와 웨슬리 채플 간의 인턴십은 김선도 감독과 김정석 목사를 통해 세워진 광림의 목회 철학이 한국 감리교회를 넘어 이제는 감리교의 근원지인 영국 감리교회에까지 크게 확장되어 나가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수민 기자

미주한인 신학교 최초 D.Miss.[선교학박사] 과정 개설!!

박사과정

선교학 박사(D.Miss)
유학생 1-20 발급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M.Div)
기독교 교육학 석사(MA CE)
선교학 석사(MA ICS)

학사과정

신학사(BA)

가을학기 원서접수 마감 : 2014년 8월 30일

온라인 원서 접수
www.gm.edu

- 온라인 과정 : 수시모집
- English Track(전과정을 영어로 강의)
- LA Extension Class: 주님의 영광교회내 (Tel: 213-479-4500)



Grace Mission University
그레이스미션대학교



ABHE정회원



TRACS정회원



ATC준회원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은혜교회내) 714-525-0088(대표), 515-5885(고객지원) admissions@gm.edu

흑인 청소년 총격 사건에 美 교계도 목소리 높여

“복음 통해 사회의 불의 깨닫고 해결 노력해야”



시민들이 경찰에 의해 죽은 사람들의 명단을 내걸고 시위 중이다 ©Loavesofbread via Wikimedia Commons

미국에서 흑인 소년이 경찰의 총격으로 인해 사망한 사건으로 인해 인종차별과 경찰의 과잉무장에 항의하는 시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마이클 브라운(18세)이 총에 맞아 숨진 미주리 주 퍼거슨 시에서는 주 당국의 야간통행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시위가 밤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미국 전역에서도 이 같은 시위에 동참하는 이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기독교계 역시 이번 사건 이후 브라운을 위한 추모 기도회와 인종차별과 공권력 과잉에 대한 정의를 촉구하는 집회 등을 열면서 미국인들의 슬픔과 분노에 대한 교회의 응답을 찾고 있다.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은 미국의 뿌리 깊은 인종차별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플로리다 주 덴버 시에서 브라운을 위한 추모 기도회를 조직한 청년 사역자 케니 윌리 목사는, “브라운의 죽음은 미국 사회에서 흑인 청년들이 마주하고 있는 체계적인 불평등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불평등의 시스템은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희생을 요구하기도 한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일은 우리가 사는 도시뿐 아니라 이 나라 전체, 그리고 이 세상 전체에 존재한다”고 말했다.

윌리 목사는 “우리는 이와 같은 불평등에 맞서고, 목숨을 잃은 모든 이들을 추모하고자 한다”며 100여 명이 참석한 추모 기도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기도회에서는 경찰의 과잉 대응으로 숨진 흑인들의 이름들이 호명되기도 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그린빌에서 200명 규모의 추모 기도회를 인도한 제시 잭슨 목사는 “오늘과 같은 투쟁은 이 나라에서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며, “브라운의 죽음이 우리 모두를 일깨웠고, 그는 우리에게 큰 공

헌을 한 것이다”고 말했다. 잭슨 목사는 브라운의 죽음은 “공무원 배지를 단 사람들의 손으로 자행된 살해”라며, “이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경고 알람과 같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으로 미국 사회 내에서 인종 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는 데 대한 우려를 표하며 교회가 이 문제에 특별히 응답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도자들도 있다. 애틀랜타 리노베이션처치를 목회하고 있는 리온스 크립트 목사는 조지아 주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퍼거슨 시에서 일어난 것과 같은 일들에 맞서 기독교 공동체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크립트 목사는 “기독교 공동체의 역할은 사회의 불의를 보고 이를 복음에 비추어 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과 보이신 모든 행동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만이 아닌 이 땅에서 우리의 현실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었다”며, “그 현실은 10대 청소년이 길거리에서 총에 맞아 죽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그가 무엇을 했느냐와는 상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시애틀 퀘스트처치의 유진 조 목사는 자신의 블로그에 “이 사건은 단지 인종 문제가 아니라 복음에 관련된 문제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된 문제”라며, 교회가 이 문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고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 삶의 모든 면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계신다”며, “우리가 복음을 믿는 한 인종 문제 역시 교회가 다루어야 할 주제”라고 말했다. 조 목사는 교인들이 브라운의 죽음에 관심을 갖고, 이를 통해 흑인들이 당하고 있는 불의를 해결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닮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손현정 기자

교회

LA 지역

한현영 담임목사
212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hc.com

박현성 담임목사
3251 W.6th St., LA, CA 90020
T. (213) 383-2600, (213) 413-1600 / laopendoor.org

엘리아 김 담임목사
978 S. Hoover St.#203 LA 90006
T. (213) 272-6031

나성한인교회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T. (323) 221-9531 / F. (323) 221-0345

진유철 담임목사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정우성 담임목사
1153 Valencia St. Los Angeles, CA 90015
T.(213)598-0191

김광삼 담임목사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김요섭 담임목사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737-3538 / www.laredeemer.com

이영 담임목사
3240 Wilshire Blvd. #265 Los Angeles, CA 90010
T. (714) 319-2234

김경렬 담임목사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399-7949 / www.smkc.us

한기형 담임목사
2525 W 9th St, Los Angeles, CA 90006
T.(213) 487-3920

정장수 담임목사
311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T.(213)387-1700 C(213)500-4737 / olympic-church.org

박승부 장로
2836 W. 8th St Los Angeles, CA 90005
T. (213) 381-7273 / (213) 605-2928

조인수 담임목사
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

이경애 목사, 이은우 목사
gkal44 Yahoo.com Tel: (213) 703-6863
522 N Hobart Blvd Los Angeles CA 90004

김세환 담임목사
7400 Osage Ave. Los Angeles, CA 90045
T. (310) 645-3698 / F. (310) 645-3060

현연성 담임목사
4545 W.Washington Blvd. LA, CA 90016
T.(323)428-7878 F(323)932-0788 / kaiholy@hanmail.net

김중호 담임목사
4323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213)281-1196 E. isaacdeew@hotmail.com

류종길 담임목사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323)766-9922 / www.jaimch.com

신승훈 담임목사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대표 김갑선 목사
부설 : Naturo pathy Clinic(월~금)
진료문의 213) 505-7067

이명수 담임목사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민중기 담임목사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549-9191 / F.(818)549-9199 / choonghyun.org

박부환 담임목사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강지원 담임목사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김기섭 담임목사
51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36
T.(323)930-0011,(323)935-0011 / www.LAsarang.com

릭 워렌, 아프리카 교계 지도자 100여 명과 컨퍼런스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릭 워렌 목사와 현지 교계 지도자들 ©새들백교회

릭 워렌 목사(Rick Warren·새들백교회)는 13일(현지시간) 아프리카 르완다의 수도 키갈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015년 아프리카 54개국 출신 교계 지도자들과 함께 컨퍼런스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워렌 목사는 이날 ‘올 아프리카 퍼포스 드 리븐 처치 콩그레스(The All Africa Purpose Driven Church Congress)’ 행사를 2015년 8월 6일부터 10일까지, 르완다 내전 종식을 기념하는 ‘감사의 날’ 기간에 맞춰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워렌 목사는 “르완다에 수차례 왔었지만, 지금이 가장 중요하다. 이번 주에 러시아, 중국, 인도, 미국을 비롯해 아프리카 30개국에서 온 100여 명의 지도자들을 초청 중이다. 이들에게 르완다의 성장과 발전을 보여주고 싶고, 르완다와 르완다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나누고 싶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르완다 교계 지도자들은 이미 2015년 컨퍼런스를 앞두고 진행되는 리더십 컨퍼런스에 참여하고 있다. 이 컨퍼런스의 특징은 르완다 지도자들이 용서의 삶을 나누는 장으로써, 화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1994년 르완다에

서 발생한 대량 학살로 인해 약 100만여 명이 죽었다.

워렌 목사는 이어 “르완다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리더십과 개혁의 심장이 되어야 한다. 이는 내가 내년에 이곳에서 열리는 컨퍼런스에 많은 교계 지도자들을 초청한 이유이기도 하다. 르완다의 강점은 땅이 아닌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2016년 라틴아메리카에서는 두 번째 컨퍼런스가 열릴 예정이다. 이 컨퍼런스는 향후 5년 동안 매년 열린다.

앞서 르완다를 방문했던 릭 워렌 목사는 중동·아프리카 지역의 교회 리더들을 만나 격려하고, ‘섬기는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건 강한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워렌 목사는 지역교회들과 기독교인들의 연합을 이루고, 지역 유지하기 위해 교회를 심고(Plant churches), 섬기는 리더들을 세우고(Equip servant leaders), 가난한 자들을 돕고(Assist the poor), 아픈 자들을 돌보고(Care for the sick),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Educate the next generation), 이른바 ‘PEACE’ 전략을 만들기도 했다. 손현정 기자

교회혁신교회

LA 동부 지역

이희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영아예배 오후 1: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성령집회 오후 8: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갓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2부예배 오전 9:30(EM)
3부 오전 11:30

박혜성 담임목사

남가주헬로쉽교회
순전한 말씀으로 열매맺는 진리의 공동체

375 N. Towne Ave., Pomona, CA 91767
T. (909) 397-5737 / nf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시
주일학교 오전 11시
성경공부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토요연합새벽기도회 오전 6:00

김성일 담임목사

빅토빌예수마음교회
제자훈련사역과 성령사역이 조화를 이루는 성도공동체

T. (760) 220-3263, (760) 542-9366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12:50

대학청년부예배 오후 12:5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수요말씀강해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고태형 담임목사

선한목자장로교회
선교하고 가르치는 교회

1816 S.Desire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965-3443 / F. (626)965-0404 / sunhanchurch.com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고송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45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EM 1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45
수요말씀강해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토) 오전 6:00

박신철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622-2324, F. (909)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 10:00-11: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이훈준 담임목사

창대교회
하나님께 영광!

173 E.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T. (909) 388-2940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금요기도회 오후 8:00

양성필 담임목사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6 E. Rorim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 www.hanarochurch.org

사우스 베이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30
목요일 오후 7:30분
새벽예배 오전 6:00(수,토)

주일오후 성경공부 오후 1:30
영어예배(EM) 오전 11:30
유년주일학교 오전 11:30

안병권 담임목사

가나교회

1201 W. 255th St. Harbor City, CA 90710
T. (310)986-9797 / ganachurch.homepage.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열린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1부예배(EM) 오전 11:00
2부예배(EM) 오후 1:15
중,고등부예배(EM) 오전 11: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9-11시

정상용 담임목사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73-5106 / F. (310) 973-7429

주일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후 12:00
성경공부 주일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

김영구 담임목사

나눔 장로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521 Lomita Blvd #202 Torrance, Ca 90505
T. (310) 404-6219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경대연습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 doulos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EM 1부 9:30/2부 11:00
중/고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권영국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땅끝까지 내 증인이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전 11: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2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30
다민족 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회

1044 West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213)365-9188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신통(通)하고 인통(通)하며 물통(通)하여 만사형통합니다!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이중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9400 / cornerstonetv.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1:15(EM)청년
5부예배 오후 3:00(EM)청년

장애우예배 오전 10:00
Toddler-Youth 오전 11:30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a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김바울 담임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www.torrancegc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 370-5500 / F. (310) 370-2009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냐다, 글렌데일, 밸리, 벤추라 지역

주일 예배 오전 11:00
주일 성경공부/사교우반 오후 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7:00 (토)

류준영 담임목사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젊은이 예배 오후 2:00

EM예배 오전 9:30/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이성현 담임목사

드림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뤄 드리는 교회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 (626) 793-0880 / F. (626) 793-6412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후 12:00
아동부예배 오전 11:50
학생회예배 오후 12:00

수요중보기도회 오후 7: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최희철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15711 Pioneer Blvd. Norwalk, CA 90650
T. (818) 363-5887 / in-christcc.org

EM예배 오전 10:00
스페인예배 오전 10:00
한국어 오전 10시 (필로우클럽) 오후 12:00 (분당)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30 (토)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파사데나장로교회
새 사람, 새 교회, 새 세상을 열어가신 신앙공동체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 (626) 795-6252 / F. (626) 584-6544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후 12:00

수요중보기도회 오후 7: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벤추라 감리 교회
성령님이 역사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교회

4300 Telegraph Rd., Ventura, CA 93003
T. (805) 658-2171 / venturakorea.com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세리토스채플)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세리토스채플)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벨리채플)
특별강성집회 오후 7:45 (다우니 채플)
금요강성집회 오후 7:45 (벨리채플)

주일 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RCA 소속 한인목회자들이, 수양회 열고 몸도 영도 재충전



RCA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소속 목회자들이 11일부터 13일까지 여름 수양회를 열었다.

RCA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회장 이재봉 목사)가 11일부터 13일까지 뉴저지 Honor's haven 리조트에서 '주 안에서 담대하라(에베소서 6장 10절)'는 주제로 여름 수양회를 열었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 목회자들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수양회에서는 아침과 저녁으로 말씀을 나누고 낮 시간에는 스포츠 및 친교 시간을 가지면서 심신의 힘을 얻고 영적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다.

첫날 저녁 집회에서 이풍삼 목사는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라(왕하 5장 8절-14절)'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풍삼 목사는 "자신의 생각대로 목회하는 것을 항상 조심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구해야 한다"면서 "문둥병자와 같이 자신의 생각은 버리고 피값으로 생명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갖도록 영드려 간구하자"고 기쁨으로 돌아갈 것을 강

조했다.

둘째날 아침 기도회는 조대형 목사가 인도했으며 둘째날 저녁집회는 한재홍 목사, 마지막날 아침 집회는 김용복 목사가 각각 말씀을 전하며 은혜를 끼쳤으며 참석한 목회자들도 새롭게 도전을 받는 시간이 됐다.

RCA 소속 목회자들은 둘째날 일정 중 자유시간을 통해 골프, 스카, 테니스, 수영, 조깅 등의 다양한 주변 레포츠 시설을 이용하면서 취미활동을 가졌다. 좋은 환경을 갖춘 시설에서 목회자들이 함께 친목을 다지면서 피로를 풀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됐다.

이번 RCA 뉴욕교협의 여름 수양회는 단기선교 등 여름철 목회의 고된 일정으로 심신이 피로한 목회자들에게 모처럼 레포츠를 즐기고 영적으로도 재도전을 받는 귀한 시간으로 진행됐다는 평가다.

김대원 기자

시애틀 한인청소년, 올해도 재능 기부 자선음악회 개최

오는 23일(토) 오후 7시 시애틀 비전교회에서



작년에 열린 "Gifts to Give 2013" 청소년 자선 음악회 출연진들

시애틀 한인 청소년들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자신의 재능을 기부하고 나섰다.

올해 오는 23일(토) 오후 7시 시애틀 비전교회(담임 권혁부 목사)에서 열리는 "Gifts to Give" 자선음악회는 지난해 자선음악회를 직접 기획하고 추진했던 정나영(Jenny Chung, 비슬 잉글모어 하이스쿨) 양을 비롯해 안다솔(Daisy An, 잉글모어 하이스쿨) 양, 박산울(Eric Park, 카미악 하이스쿨) 군이 그 주인공이다.

또한, 최유진, 이재은, 전아령, 매디 전, 김나연 양이 피아노,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등 피아노 5중주를 선사한다. 이주영(벨뷰 하이스쿨) 양과 토미 이(시애틀 루즈벨트 하이스쿨) 군은 바이올린 2중주를 선보인다.

올해 재능 기부 콘서트의 수익금은 장애인 선교단체인 시애틀 발달선교단(단장 장영준 목사)에 전액 전달될 계획이다.

한편 정나영 양은 정재원 연세대학교 신

학대학 교수의 장녀로 4살 때부터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해 10세인 2006년에 한국에서 전국학생음악경연대회 피아노부 금상을 수상했다. 이어 2012 이스트사이드 Performing Arts 페스티벌에서 1등한 것을 비롯해 2012 Beatrice Hermann Festival, 2012 and 2013 Seattle International Performing Festival(SIPF), Romantic Era Festival, 2013 Washington Music Education Association's regional competition에서 1등을 차지하며 미국 각종대회에서도 우수한 실력을 나타내고 있다.

정나영 양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자 우리들이 가진 재능으로 자선음악회를 열기로 계획했다"며 "이 음악회를 통해 한인 어른들과 청소년들이 같이하는 자리가 되고, 소외되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음악회 티켓은 1인당 10달러다.

문의: 425-736-0693

김 브라이언 기자

아름다운교회 나바호 단기선교

메릴랜드주 랍블 소재 아름다운교회(담임 안계수 목사)가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7월 28일부터 8월 2일까지 아리조나 투바 시티 나바호 인디언 보호지역을 방문해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돌아 왔다.

안계수 담임목사 외 7명의 단원들은 토나레아 순복음교회에서 "Shine Jesus Shine"이란 주제로 여름성경학교를 진행했으며, 주일학교 교육 후원을 위해 노트북과 TV, 성경과 찬양 DVD 세트를 지원했다.

아름다운교회는 현지교회 담임목사인 잔 목사의 사역을 돕기 위해, 단기선교시에만 실시하는 일회성의 성경학교가 아니라 주일학교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교회 교육을 모니터링 하기로 했으며, 지속적으로 교사 훈련과 교육자재를 지원키로

했다.

또한, 아름다운교회는 인디언 보호지역 내에 거주하는 유일한 한인선교사인 이영호 선교사의 사역 후원을 위해 교우들이 준비한 선교헌금과 노트북 등도 전달했다.

안계수 목사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섭리로 인디언 보호구역 내에 땅을 불하 받고 청소년 훈련을 위한 선교센터를 건축하기 위하여 헌신을 이영호 선교사를 후원하기 위하여 후원교회를 연결하는 일도 담당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단기선교를 계획하거나 선교센터 건축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의 연락을 바란다"고 전했다.

문의: 301-452-6271(안계수 목사)
347-551-0992(남침례회 이영호 선교사)

앵커리지 한인회 광복절 기념행사 및 한마음 대축제 성황리에 개최



앵커리지 한인회 광복절 행사 후 기념촬영

사회, 교계, 정계 인사들 참석해 뜻깊은 자리

제 69주년 광복절 기념 및 한마음 대축제 앵커리지 한인회 주최로 전승민 앵커리지 영사출장소장, Mark Begich 미연방 상원의원, 송원석 알래스카 교회연합회장 등 약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Wendler Middle School에서 지난 9일 성황리에 개최됐다.

기념식은 김기곤 부회장의 사회로, 국민의례에 이어 알래스카 교회연합회 송원석 목사의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 윤요한 한인회장에 환영인사, 박서경 서북미 연합회장에 격려사, 전승민 영사출장소장의 축사, 미연방 Mark Begich 상원의원의 축사로 진행됐다.

최규재 앵커리지노인회장의 선창으로 만세삼창으로 대회를 마친 참석자들은 윤요한 한인회장의 “아베정권 사과 촉구 궐기대회” 문안 낭독을 들은 후 아베정권의 사과를 촉구하는 서명서에 서명했다.

윤요한 회장은 기념사에서 “앵커리지 한인회는 한민족 한마음 대축제란 슬로건을 내걸고 매년 다른 소수 민족들을 초청해 한국 민족놀이와 스포츠를 즐기는 행사를 진

행하고 있다”며 “이 축제는 현지 한인들만의 축제가 아니라 앵커리지 전체의 축제로 격상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만큼 큰 의미가 있는 행사”라고 말했다.

윤 회장은 “미주류사회와 함께하는 광복절 행사를 다 함께 경축하고, 선열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되새기며, 조국애와 역사 의식이 함양될 수 있기를 광복절을 맞이하여 기대한다”며 동포들의 적극적 참여와 성원을 당부했다.

박서경 연합회장은 “이 행사를 통해 우리 조국에 대하여 자부심과 긍지를 느낀다”며 “앞으로도 앵커리지 한인회와 미주류사회와의 관계 증진을 통해 이 지역 동포들의 권의 증진을 위해 많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화섭 전 연합회장,김연수 전 회장, 손석근 전 회장, 오명식 전 회장과 한국전 참전용사 회원 등도 참석했다.

한편, 윤요한 앵커리지 한인회장은 광복절 행사 전일에 알래스카 주지사를 예방한 안호영 주미대사를 환영하는 리셉션에 참석해 연설 하는 등 바쁜 일정을 보냈다.

일대일 동역 선교 발전과 활성화 협력증진 위한 선언문 채택

디아스포라 한인 교회와 성도 자원 선교 동력화 중점



제2회 GSM 세계 선교대회를 위해 세계 각국에서 모인 선교사들

전 세계 500여 선교사의 사역을 지원하는 GSM 선한목자선교회(대표 황선규 선교사, Good Shepherd Mission)는 ‘일대일 동역 선교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협력증진’을 골자로 “2014 GSM 시애틀 선언문”을 채택, 발표했다.

선언문에 따르면 GSM 선교회는 일대일 동역 선교 네트워크 확대에 전,후방 선교 협력을 극대화시키고, 전 세계에 흩어진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와 성도들의 자원을 선교 동력화 하기 위해 연구 개발에 중점을 둘 것으로 밝혔다.

GSM 선교회는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도, 미접촉 종족을 향한 마음을 품고 국제 선교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전문인 선교와 비즈니스 선교 등 창의적 접근 지역 선교를 통해 새로운 패러다임의 선교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GSM 선교회는 또 평화 통일 한국을 대비한 북한 선교와 한류 열풍의 문화사역 개발에도 박차를 가해 선교에 주목 시키고, 현지인 지도자 개발을 통해 현지인 토착 교회 개척에도 힘을 쏟을 것이라 밝혔다.

GSM 선교회는 중보기도 운동의 확산을 통해 전 세계와 각 지역의 영적 부흥을 도모하고, 장애인, 어린이 선교에도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GSM 선교회는 1대 1 동역 선교를 통해 ‘100달러가 꼭 필요한 선교지’와 후원자를 연결시켜주는 초교파 선교단체로, 2002년 7월 15명의 선교사 후원을 시작으로 지금껏 빠르게 성장해 현재는 65개 선교국의 선교사 531명을 매달 섬기며 동역하는 선

교단체다.

GSM 선교회는 일선의 선교사와 후방의 후원자를 1대 1로 연결하며 특히 후원금 100%를 선교사들에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후원자들과 세계 선교사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황 목사는 “GSM은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13년 동안 수많은 선교사들의 사역을 섬길 수 있도록 성장했다”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GSM은 이제 100불 선교와 더불어 확고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충실한 동역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전파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GSM은 선교사간 긴밀히 교류하고 선교를 위한 전략적 네트워크를 강화해 지부를 30개국으로 확대하고 내년에는 연말까지 일선 선교사를 650명까지 섬길 예정이다.

더불어 현재 선교 국가를 65개국에서 100개국으로 확대하고 2021년까지 선교사 1000명, 후원자 2000명 목표로 사역을 추진하며 MK 사역과 1.5세와 2세들의 적극적인 후원 참여 등으로 사역 영역을 확장할 계획이다.

한편 GSM 선교회를 창립한 황선규 선교사는 시애틀 중앙침례교회에서 목회하던 가운데 폐암 말기 진단을 받고 남은 생을 선교에 바치기로 결단해, 지난 2002년 은퇴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선교 일선 선교사들과 후방 선교지원을 연결하는 교량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김 브라이언 기자

O.C./앨버틴 지역

오병익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2:3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건강한 교회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교회
7037 orangethorpe Ave., Buena Park CA 90621
T.(714) 801-1625 kpcadavid@yahoo.com

김영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20
2부예배 오전 9:00
3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 오후 7:30
경애인예배 오전 11:00
영아장년부 오전 9:00, 11:00
한어권성인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매일 5:30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영 유아부 오전 11:00
유 초등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나침반 한국학교 주일 오전 9:15
EM대학부 오후 1:30
YM대학부 오후 1:30
유 초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6:30

민경업 담임목사

나침반 교회
모이는 교회 헤어지는 교회
1200W Lambert Rd, Brea CA 92821(Lambert&Puenta)
T.(562)691-0691 F.(562)691-0698 / nachimbans.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전 11:00
3부(찬년)예배 오후 1:00

남가주동신교회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시는 교회
2505 Yorba Linda Bl., Fullerton, CA 92831
T. (714) 680-9556 / F. (714) 680-6418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매일새벽예배 오전5:30
Youth 예배 오전10:30
EM예배 오후 2:30

박용덕 담임목사

남가주빛내리교회
God First 기록한 MVP 공동체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90631
T. (714) 401-9874 / starkoreanchurch.org

1부 주일예배 오전 8:00
2부 주일 영어예배 오전 10:00
3부 주일예배 오후 2:30

새벽예배 오전 6:00 분당
수요기도 저녁 8:00 분당
금요공부 저녁 8:00 분당

허규암 담임목사

놀익연합감리교회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로 세우는 교회
13000 San Antonio Dr., Norwalk, CA90650
T.(562)802-4959 C.(714)308-7038 / usa8291@gmail.com

1부예배 오전 8:45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9:30

금요 Alpha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이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1655 West Broadway St., Anaheim, CA92802
T. (714)999-9900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한인교회
우리크리스천이다. 내가 크리스천이다.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오전 8시, 오전 10시
화요일 오후 7시(계시목)
금요일 오후 7시(계시목 7교회)

남상국 담임목사

오픈바이블교회
OPEN BIBLE CHURCH
800 S.Harbor Blvd. #220, Anaheim, CA 92805(Harbor + South)
T. (949)285-0619 / E. obchurch7@gmail.com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주일학교 오전 11:00 (토) 오전 6:00

신원규 담임목사

삼성장로교회
주님 주신 축복권을 누리는 성도의 삶 선교와 구제의 삶으로 실천
501 S. Idaho St., La Habra, CA 90631
T. (562) 690-9800 / F. (562) 690-8044
www.socalsamsungchurch.org

1부예배 오전 7:30(분당)
2부예배 오전 10:00(분당)
3부예배 오전 12:30(FC제물)

EM예배 오전 10:00(FC제물)
오후 12:30(분당)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5:45(화-목) / 6:00(토)

남성국 담임목사

세리토스장로교회
OPEN BIBLE CHURCH
11841 E. 178th St., Artesia, CA90701(분당)
T. 562-677-7777, F. 562-677-7778 / ilovepcp.org

주일예배 오전 10:45
EM영어예배 오후 12:45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김민재 담임목사

예친교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친구' 공동체
955 W Imperial Hwy Brea, CA 92821 ECCU Auditorium (Worship Center) T. (714) 788-3677
18639 Yorba Linda Bl. Yorba Linda, CA 92886(교회 사무실)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1:30

새벽예배(월-금) 오전5:30
(토) 오전6:00
월일예배(수) 오후 7:30
성령집회(매월 둘째 금) 오후 7:30

최상준 담임목사

앨버틴 침례교회
5101 Walnut Ave., Irvine, CA92604
T. (949)857-9425 / F.(949)857-9242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대학청년부 오후 1: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최상준 담임목사

앨버틴 한민음교회
믿음으로 하나되는 교회
18182 Culver Dr., Irvine, CA 92612
T. (949) 769-9628

김삼도 목사
과주일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10:00

앨버틴 할렐루야교회
15520 Rockfield Blvd, #F Irvine, CA 92618
T. (949) 514-4346 F.(949) 305-3951

주일예배: 1부 오전 6:00
매일 오전 6:00(화-금)
오후 7:30
오후 7:30

(매월 S.D.F, Power minister)

지사론 담임목사

열방사랑선교센터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규합된 영혼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명: 생애,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인도되는 선교센터
9850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T. (714) 488-8291, (714) 644-1697

주일 인터넷 생방송등기 오전 6:30
주일 예배: 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 7:30
토요 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예배: 오후 7:30

우대권 담임목사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213) 291-5901 / (714) 833-2568 daekwon.org

주일1부예배 오전 8:15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45
영아주일예배 오전 10:00

유년부 초등부예배 오전 11:30
영아중고등부예배 오전 11:30
한어중고등부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토 주일 오전 6:00

엄영민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열린교회, 주는교회, 키우는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92683
T. 714-891-2029, 898-1068 F. 714-373-3097

주일예배 오후 1:00(분당)
EM예배 오후 1:00(pre-school)
주일성경공부 오후 3:00
목요성령집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이스라엘 세미나: 매달 첫째주 (토) 오전 10:00

최국현 담임목사

은혜와진리교회
부설: 이스라엘 말리아 선교회-성지순례, 정밀전문
4000 Green Ave, Los Alamitos, CA 90720
T. (714)351-0124(Cell), (562)475-4323(Church)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월일 오전 6:30
토요일 오전 6:00
금요성령예배 오후 8:00
금요중보예배 오후 7:3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미루지 않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찬양 오전 11:15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92683
T. (714) 893-1652 / kccoc.com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목성예배 오후 2:30
월요 선교학교 오후 7:30
월요 중보예배 오후 7:30

수요 예배 오후 7:30
목요 성경학교 오후 7:30
목요 성령학교 오후 7:30
금요침야예배 오후 8:00
토요 E.M.예배 오후 7:30

앤드류 김 담임목사

작은자 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 교회
1681 W Broadway Anaheim, CA 92802
Tel: 714-635-6402, Cell: 714-600-7700 www.ubmchurch.com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3부: 오후 1:30

수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금)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 빛 교회
7651 5th St, Buena Park, CA 90621 www.lordlight.org
T. (562) 896-9191, (714) 670-6700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엘에이 정식허가 고급하숙
임주자화제\$ 책임보험 5성급호텔의 시설
아침,저녁제공 캐리어 tv 초고속인터넷,냉장고,세탁장,교통편리
1호점: 8가 + Catalina, 정식허가
2호점: 5성급호텔의 시설 (올림픽+원저)
3호점: 최고급 5성급호텔 시설(3가+옥스퍼드)
T. 213.327.4710

www.SuperMirapharm.com

투병생활이 필요없는 치유의 시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각종 암, 난치병, 아토피 천연 치료제 개발!!

미라팜-22 MIRAPHARM-22

22세기형 생명공학적인 첨단 의약품으로 탄생했습니다.

2014년 한국은 면역조절제 개발이 국가적 신약개발 과제로 대두되었다. 이른바 생물학적 면역조절제 개발 프로젝트이다. 인간의 질병의 근본 원인 치료제를 개발하는 게 목표이다. 기존 면역조절제(화학성)의 부작용을 최소화해 안전성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생명공학적인 접근이 필요한 때라서 국가적인 개발 과제로 삼은 것이다. 그런데 본사는 이런 첨단 의약품제조기술을 25년 전부터 연구하기 시작하여 생체응답 조절작용제로서의 면역조절제인 미라팜-22를 미국 FDA에 일반의약품으로 등록하고 출시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FDA에 NDC (OTC Drug) 일반의약품으로 인증 등록 됨
일반의약품 등록번호 NDC No.: 58912-2001-1



FDA 직접 확인해보기
NDC Number를 선택하시고
58912-2001-1 로 검색

각종 암,
난치병, 아토피 등
질병에 대한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을 주는
**MIRA
PHARM
-22**

Mirapharm-22는
Miracle Pharmacy(기적의 약)의 합성어이며
22는 22세기형 첨단신약을 뜻합니다.



90cap. 300mg/cap. Made in USA

100% 천연 물질로 만들었으며 25년간의 연구와 비임상을 거쳐 효과는 확실히 검증이 되었고 부작용의 염려가 없습니다.

- ◆ 14년간의 연구와 11년간의 임상 끝에 미국 FDA에 Human OTC Drug 일반의약품으로 등록됨
- ◆ FDA 등록 연구소에서 성분 분석 테스트 결과, 영양 함유물 및 식품으로 안전하다고 인증됨
- ◆ 각종 암, 난치병, 아토피 등 면역결핍에 의한 각종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을 주는 약으로 등록 명기되어 있음.
- ◆ 친환경 100% 천연 유기물질을 핵심 재료로 생명공학적인 공법으로 특수 가공한 차세대 신개념의 첨단 천연의약품인 면역증강 및 면역조절제
- ◆ 면역증강제로도 치유되기 어려운 자기면역질환들을 면역조절제로써 자가치유할 수 있는 첨단 의약품
- ◆ 어떤 면역증강 건강보조식품보다 탁월한 효능을 입증받아 일반의약품 NDC OTC Drug로 등록되었으며, 수많은 난치병들 중 대부분은 자기면역질환으로써 현존하는 약으로는 치료가 어렵지만 면역조절제인 미라팜-22는 이런 난치병들을 자기와 비자기를 인지할 수 있도록 면역세포에 작용, 항원특이적 또는 비특이적으로 면역반응을 증강시켜 면역계에 작용하여 면역반응을 촉진시킴으로써 면역을 스스로 조절해 주면서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을 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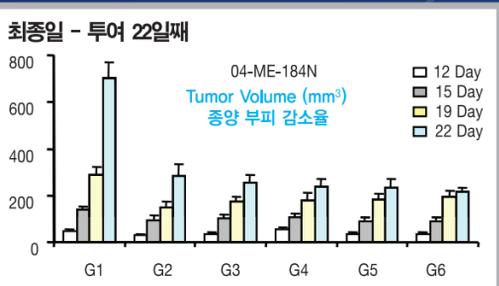


갑상선
말기암
환자의
최근 체형사례



생후 5개월부터
28년된
아토피 환자의
치료 사례

암 예방 및 치료제인 미라팜-22가 화학 항암제보다 월등히 뛰어나다고 검증된 비임상 테스트 확인 도표



군 (mg/kg)	Control 무치료	Doxorubisin (2) 화학항암제	Mirapharm-22 (75) 미라팜-22	Mirapharm-22 (150) 미라팜-22	Mirapharm-22 (300) 미라팜-22	Mirapharm-22 (300) 사전 예방처리
22일째 (최종일)	704.6 ±67.2	285.6 ±50.6	251.9 ±36.3	235.3 ±34.6	232.1 ±38.5	214.2 ±20.5
22일째의 억제율 %	0	59.5	64.3	66.6	67.1	69.6
	G1	G2	G3	G4	G5	G6

- 화학요법 항암제보다 월등히 뛰어난 암 부위 감소율의 결과로 천연 치료제 미라팜-22의 비임상 결과에 대한 논문은 추후 학술지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 옆의 도표들은 각각 두 차례 정부 인가 연구소에서 비임상 테스트를 통해 나온 결과이며 미라팜-22를 더 많이 복용했을 때에 더 좋은 결과를 나타냅니다.

미라팜-22 총판 및 대리점 모집

난치병 및 각종 암치료제로 더욱 유명해진 천연 미라팜-22가 전 세계적으로 수출을 시작하면서 미국내 지역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 이 제품을 판매 및 수출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1. 각 지역 총판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
2. 각 지역의 도시의 대리점을 운영하실 분
3. 현재 약국을 운영하시는 분
4. 건강보조식품 센터를 운영하시는 분
5. 의약품 세일즈 전문업을 하시는 분
6. 건강보조 제품 세일즈를 하시는 분

HQ 헬스 / HQ 바이오텍, INC. L.A. 본 점 (213)365-2100
833 S. Western Ave. #1, L.A., CA 90005 세리토스점 (562)760-2359
월-금: 10am-7pm, 토:10am-5pm



쿠바, 공산주의 혁명 후 반 세기만에 교회신축 허가

현지 교계, “교회에 대한 정부의 태도 변화 보인 것”



쿠바 하바나 혁명광장에 자리한 내무부 건물. 혁명을 주도한 체 게바라의 초상화가 걸려 있다. ©Martin Abegglen

쿠바에서 지난 1959년 공산주의 혁명 이래로 55년 만에 처음으로 교회 신축이 허가됐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는 12일(현지 시각) 쿠바 정부가 제2의 도시인 산티아고 드 쿠바에 가톨릭 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2012년 허리케인 샌디로 인해 파괴된 채로 남아 있었던 이 교회는 지금까지 길에서 미사를 드려 오다 약 2년여 만에 건물을 다시 지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례적인 교회 신축 허가는 쿠바에서 가톨릭 교회의 영향력 확대를 보여주는 예일 수 있다고 이 신문은 분석했다.

미국 오픈도어즈에 따르면 쿠바는 인구의 85%가 가톨릭 교인이지만 공산주의 정부의 제재로 인해서 자유로운 신앙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현지 교인들은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톨릭 교회의 성장은 쿠바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으며, 특히 피델 카스트로가 정권에서 물러난 이래로 개혁 추진과 함께 사회 내에서 교회의 영향력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쿠바 가톨릭 교회의 하바나 교구 지도자인 마르케스 히달고를 비롯한 쿠바 지역 전문가들은 최근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주최로 열린 ‘오늘날 쿠바에서의 가톨릭 교회의 역할’이란 주제의 세미나에서 “가톨릭 교회는 최근 20여 년 동안 쿠바 사회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해 왔으며 정부와의 대화도 이뤄지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가 교회를 여전히 탄압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교회 신축 허가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견해도 있다. 미국 플로리다에 본부를 둔 쿠바인권재단(Human Rights in Cuba)의 페드로 로드리게즈 사무총장은 “이러한 움직임은 라울 카스트로를 진정한 개혁가로 보여지게 하기 위한 일종의

속임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쿠바 정부는 자신들이 과거의 독재주의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인상을 해외 투자자들에게 주기를 원하고 있다”며 교회 신축 허가 역시 이러한 정책의 일환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로드리게즈 사무총장은 “이는 쿠바에서는 여전히 인권 탄압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정부가 인권 운동가들의 입을 막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지 가톨릭 교회가 이러한 문제들에 맞서 싸우지 않는 데 대해서도 불만을 표하며 “불행하게도 쿠바 가톨릭 교회는 정부에 거의 대항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지 가톨릭 교회는 정부의 교회 신축 허가를 환영하며, 이를 긍정적인 변화로 본다는 입장을 전했다.

산티아고 드 쿠바 교구의 디오니시오 가르시아 이바네즈 대주교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결정은 가톨릭 교회는 물론 기독교 교회 전체에 대해 변화된 정부의 태도를 보여줄 뿐 아니라 정부가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해 이해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바네즈 대주교는 “앞으로 이 교회뿐 아니라 더 많은 교회들이 쿠바에 세워지기를 희망한다”고도 전했다.

한편, 교회 신축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미국 플로리다 탐파의 로렌스 교구가 지원한다. 교구 내 다수의 교인들이 쿠바 출신 망명자들이거나 그 2세들이므로 알려졌다.

순현정 기자

이라크 내 기독교인 박해 “강력 규탄”

WEA, 세계 교회에 기도와 지원 당부



제프 터니클리프 WEA 총재

세계복음연맹(WEA)이 이라크에서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소수종교인들에 대한 박해를 강력히 규탄하고, 세계 회원교회와 국제사회에 고충받고 있는 이라크의 신앙인들을 위한 기도와 지원을 당부했다.

제프 터니클리프 총재는 지난 8일(현지시각) 발표한 성명을 통해서 “WEA는 IS가 이라크에서 기독교인을 비롯한 소수종교인들을 대상으로 벌이고 있는 잔혹한 악행을 규탄한다”며, 특히 “기독교 공동체는 이라크에서 이슬람이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뿌리를 내리고 살아 왔으며 사회의 안녕에 기여해 왔다.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차별적인 박해는 그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터니클리프 총재는 “지금도 모든 신앙인들이 일어나서 이 같은 비인간적이고 폭력적인 탄압에 맞설 때”라고도 촉구하면서, 세계 회원교회와 국제사회가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라크의 교인들을 지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이라크의 박해받는 교인들이 지금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은 보호, 안전, 그리고 구호다. 수천 명의 교인들이 옷만 겨우 걸친 채로 고향을 떠나 왔다”고 말했다.

또한 터니클리프 총재는 이라크의 교인들을 위하여 지속적인 기도를 요청하면서, “WEA와 함께 이라크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주고, 모두에게 평화와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기를 기도해 달라”고 강조하여 말했다.

IS는 지난 6월 이라크 제2의 도시인 모술을 점거한 이래로 북

서부 지역 내 도시들을 차례대로 장악해 나가고 있는 것은 물론 주요 발전소와 댐까지 손에 넣으면서 세를 확산해 가고 있다. 이들이 점령한 도시들에서 무슬림이 아닌 소수종교인들, 특히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가하고 있는 박해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사고 있다.

이에 따라 IS가 장악한 지역들에서 소수종교인들의 탈출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천 년 가까이 기독교인들의 삶의 터전이 되어 온 모술에서는 IS가 도시를 점거한 이래로 기독교 인구의 95% 이상이 박해를 피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IS는 소수종교인들에게 인두세를 부과하고 개종을 강요하면서 이에 불응하는 이들에게 폭력과 살해를 저지르고 있으며, 어린이들을 참수하는 극도로 반인도적인 잔혹 행위까지 벌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지 칼데아 정교회는 최근 CNN을 통해 IS가 이라크에서 소수종교인들에 대한 ‘집단학살(genocide)’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제사회의 개입을 촉구했다.

교회 측은 “IS는 비단 특정 소수종교 공동체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아니라 인류에 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전 세계가 함께 이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WEA는 지난 11일 뉴욕에서 이라크의 기독교인 박해 상황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분쟁과 관련해 중동 지역의 평화를 위한 기도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순현정 기자

복음주의 지도자들, 이스라엘 방문해 연대감 표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교전이 지속 중인 가운데 미국의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17일(이하 현지시각)부터 이스라엘을 방문하고 있다. 이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연대감을 표시하고 반유대주의에 항의한다는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방문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문단에는 미국을 대표하는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다수 이름을 올리고 있다. 미국 최대 보수교단인 남침례교 전 윤리와종교자유위원장 리처드 랜드(Richard Land) 목사, 기독교 가정운동 단체 패밀리리서치카운슬의 토니 퍼킨스(Tony Perkins) 목사, 빌리 그레함 목사의 장녀이자 앤젤미니스트리즈 회장인 앤 그레함 롯츠(Anne Graham Lotz) 목사, 미국종교방송인협회 회장인 제리 존슨(Jerry A. Johnson) 박사 등이 17일부터 22일까지의 일정으로 현재 이스라엘을

방문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방문에 앞서서 존슨 박사는 성명을 발표하고, “반유대주의가 세계 언론들과 시민들 사이에서 퍼져나가고 있는 가운데 이 친선 방문을 통해 미국 복음주의 공동체가 하마스에 반대하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모든 사람들을 지지하고 있다는 뜻을 전달하기 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이 방문은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이 그들의 안전을 위해 싸울 권리를 지지한다는 점 역시 전 세계에 보여주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존슨 박사는 “무엇보다도 이 방문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분이 되어서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한 기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고무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우리의 방문에 협조해 준 이스라엘 관공청에 감사의 마음을

고 전했다.

퍼킨스 박사 역시 “이 여행은 미국 기독교인들의 변함없는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를 다시 한 번 보여줄 것이다”며, “우리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와 노력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우는 방문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을 지지해야 할 두 가지의 핵심적인 이유가 있다”며, “먼저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우리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감사해야 한다. 또한 성경은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지시할 뿐 아니라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는다고 가르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퍼킨스 박사는 이번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것은 미국의 안보를 위하는 길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박성민 기자

추나
수술 없이
척추 치료



장수 한의원

한방 특진 안내 >> **침, 뜸, 부항, 추나**

두통, 목, 오십견, 요통, 관절염, 좌골신경, 신경통, 중풍, 위장병, 간장병, 심장병, 신경쇠약, 신경통, 고혈압, 부인병, 갱년기 장애, 어린이 보약, 산전산후 보약

각종 보험 환영 직장상해보험
교통사고 및 스포츠사고 전문
HMO (이지초이스)
통증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

척추 교정

골반 교정

자세 교정

근육 교정

- 디스크 치료 후에도 계속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
- 팔이 뻣고 저리며 통증이 있거나 감각이 없으신 분
- 목을 돌리기 힘들고 통증이 있으며 손가락에 감각이 없으신 분
- 어깨 통증으로 팔을 들어 올리기가 힘든 분
- 잠을 자고 난 후 갑자기 목을 움직이지 못하며 통증이 심하신 분
- 갑자기 허리를 움직이지 못한 정도로 통증이 심하신 분
- 지긋지긋한 허리통증과 만성 디스크로 뼈뺀 척추
- 영치 및 다리가 뻣고 저리며 통증이 있으신 분
- 물건을 들다가 뼈뺀하여 허리가 아프신 분
- 그 외 척추로 인한 모든 질병 걱정 뚫!

통증 클리닉 : 중풍마비, 관절염, 두통, 신경통, 요통, 디스크, 허리, 목

성 클리닉 : (남성)전립선, 발기부전, 조루, 정력저하, (여성)불감증

한방 내과 : 감기, 천식, 고혈압, 당뇨, 위장병, 갑상선 질환, 변비, 알러지, 피부병, 비염

한방 부인과 : 불임증, 갱년기 장애, 월경불순, 산전 산후 보약

한방 정신과 : 치매 및 예방, 우울증, 불면증, 각종 스트레스 질병

한방 소아과 : 허약체질, 소아경기, 성장장애 및 보약

기타 : 비만치료

이런분께

- ▶ 이곳 저곳을 다녀 봤지만 효과 못본 분
- ▶ 지긋지긋한 고질병을 앓고 싶은 분
- ▶ 본인은 고통스럽고 불편하나 병원을 가도 병명이 나오지 않는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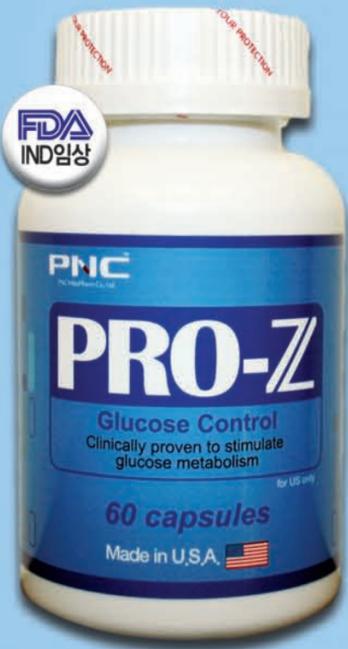
(213)381-7575 / Cell:(213)219-2739

월-금 오전9시-오후6시, 토요일 오전9시-오후2시 (예약 하신분에 한해서 밤 10시까지 진료)

3523 W. Olympic Blvd. #102
Los Angeles, CA 90019

100% 천연성분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당뇨! 원인 기능 개선제

PRO-Z

✓ 한국 30만병 판매 ✓ 미국 출시 기념 SALE

1병 \$76 3병 \$200 6병 \$372

당뇨병의 원인?

당뇨병이란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 즉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가 지속할 때를 말합니다. 음식을 섭취 후 혈액으로 들어온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췌장 베타세포에서 나오는 인슐린이란 호르몬이 필수입니다. 만약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분비된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당뇨병의 치료방법은 있는가?

당뇨병은 조절은 할 수 있으나 완치는 불가능하며 단지 당뇨병의 진행을 정지시키고, 동시에 당뇨에 인한 합병증의 발생 및 진전을 예방하는 것이 일반론입니다. 현재 당뇨 환자들이 주로 복용하는 아반디아와 액토스는 천연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 장기 복용 시 심각한 부작용(심장부종, 신장부종, 간독성)과 방광암 등 유발하는 것으로 유수의 대학의 연구팀들의 연구결과로 드러났습니다. 아반디아는 2010년 말에 판매가 중지되었고, 액토스는 2011년 상반기에 프랑스와 독일 유럽 전역으로 판매금지가 확산했습니다. 중앙일보 2014년 5월 15일 경제 3면에서 액토스를 복용한 한인들이 집단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기사가 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기존의 당뇨약은 혈당을 낮출 수 있으나 각종 부작용이 만만치 않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송문기 박사는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송문기 박사는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합성 물질(CHP Plus Zinc)을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임상실험을 실시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라는 놀라운 결과를 보였습니다. 또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고, 현재 미국의 병원 2곳에서는 당뇨치료 보조제로 처방하고 있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 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5,997,908

당뇨병 회복의 새로운 메카니즘인 '프로지'

40년간 Zinc Metabolism을 연구해온 송문기 박사는 아연이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sensitivity)에 깊게 관련된 사실을 주목하여 Zinc Metabolism을 활용한 신 합성물질 '프로지'를 개발하였습니다. '프로지'는 혈당강화제와는 달리 당뇨의 근본원인(인슐린 저항성 및 췌장 베타세포 파괴에 의한 인슐린 분비기능저하)을 해결하는 메카니즘입니다. 당뇨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면역력이 저하됨으로써 생긴 결과입니다. 아연은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필수미네랄입니다. 포도당을 세포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인슐린이 하는데, 당뇨 환자들은 혈액 속에 여러 가지 요인(비만, 과음, 운동부족, 스트레스)에 의해 인슐린 반응도가 낮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IDE(Insulin Degradation Enzyme)라는 소화효소가 필수적인데 이 소화효소의 주성분이 아연이며, 아연은 췌장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저장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신 합성물질(CHP Plus Zinc) 프로지는 우리 몸속에서 근육과 지방세포로 아연을 운반하여 아연의 신진대사 활성화를 통한 인슐린수용체의 활성화 및 인슐린 수용체의 생성을 촉진함으로써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

아연이 당대사와 밀접하다면, 왜 아연으로 만든 당뇨약은 없나요?

아연은 특성상 섭취 시 인체 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짧고 흡수율이 떨어진다라는 약점이 있습니다. 음식에도 굴이나 소고기 등에 아연이 존재하지만, 섭취 후 3~4시간이면 소변으로 배출되고 몸에 흡수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아연이 췌장 세포 기능을 복원하고 근육세포의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체내에 아연흡수율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성과를 볼 수 있습니다. '프로지'는 소의 전립선 추출물(CHP)과 아연을 킬레이트시킴으로써 체내에 머무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이 때문에 아연의 체내 흡수율을 획기적으로 높여 당의 대사를 도와 몸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송문기 박사와 연구팀은 이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취득하고 당뇨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WHO is he

송문기 박사

UCLA 의과대학 연구 교수
미, 재향 군인 병원, 수석 연구원
세계 3대 인명사전 Marquis Who's Who에 등재
40년간 당뇨연구에 매진한 대한민국 대표 과학자

프로지를 개발한 송문기 박사는 인류 복지 건강에 위해가 되는 당뇨, 비만, 알츠하이머(치매)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도록 40여 년간을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그는 하와이대학, UCLA 대학교수 미 재향군인병원(US V. A. Hospital)에서 근무했으며, 가장 시급한 당뇨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미국 FDA 신약 임상시험을 거치고 있으며(현재 마지막 3차 임상시험 진행) 조만간 만족스러운 결과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 전에 FDA의 독성 TEST, 국제규격에 부합되는 임상 TEST를 거쳐 FDA로부터 신약판매 전에 건강기능식품(PRO-Z)으로 허가를 받아 당뇨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당뇨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당뇨원인 기능개선제' 프로지를 출시했습니다.

송문기 박사는 체내 아연 대사와 관련한 각종 연구성과를 통해 세계 3대 100인 인명사전 중 가장 권위 있는 Marquis Who's Who에 등재된 인물입니다. 또, 현재 세계적인 과학지인 NATURE 등 세계 유수 연구 관련 기관의 심사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프로지를 아침, 저녁 하루 2알을 6달 정도 복용 후에 아침 당 수치가 내려가 지금은 정상인에 가까운 수치로 떨어짐. 몸이 부어 걷기 불편했는데 부기가 가라앉아 지금은 걷는데 지장이 없어졌습니다
- 김OO 장로 (당뇨 10년)

프로지를 아침, 점심, 저녁에 하루 3알을 4개월간 복용하니 아침 당 수치가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서서히 내려가던 당이 7개월째는 정상인 수치까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인슐린 주사를 맞으면서 혈당 조절을 했는데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 가지 음식을 가려서 먹다 보니 뼈밖에 안 남을 정도였는데, 지금은 음식을 이것저것 잘 먹으니 몸에 살이 붓고 건강해졌습니다. 지금은 아침, 저녁으로 하루 2알만 먹습니다.
- 최OO 목사 (당뇨 30년)

전립선이 심해서 화장실 가는 것도 서 있고 앉아 있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프로지를 하루 3알 4달간 복용하고 나서 고통이 점점 줄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비타민처럼 하루에 2알씩 꼬박꼬박 챙겨서 먹고 있습니다. 고통 없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어 너무도 놀랍고 감사합니다.
- 이OO 집사 (전립선)

타주 대리점 및 프로지셀러모집중

213.434.1170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PRO-Z USA
미국 공식 판매처

[최덕성 박사의 특별기고] 교황 프란치스코께 묻는다 ② 만인보편구원주의

‘예수 없이도 구원 받는다’ 는 로마가톨릭교회(2)

3.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

로마가톨릭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거나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교회와 무관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지 않는다.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세 부류의 사람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로마가톨릭교회라는 제도와 교회 조직 안에 있는 사람 곧 교황과 주교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결합된 사람일지라도 “사랑 안에 머무르지 못하고 교회의 품 안에 ‘마음’이 아니라 ‘몸’만 남아 있는 사람”(교회헌장, 제14항)이다. 다시 말하면 온전한 마음을 다하지 않는 형식적인, 명목상 로마가톨릭교회 신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둘째, 그리스도께서 로마가톨릭교회를 세우신 것을 “모르지 않으면서도 교회에 들어오기를 싫어하거나 그 안에 머물러 있기를 거부하는 사람”(제14항)이다. 종교개혁자들과 개신교 교의신학자나 역사신학자가 이 부류에 속한다. 셋째, 악마의 속임수에 넘어가 허황된 생각에 빠지거나, 진리를 거짓과 뒤바꾸고 피조물을 섬기는 자, 하나님 없이 살다 죽어가는 극도의 절망에 놓인 사람이다(제16항).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다가 사탄에 미혹당한 악인들이다.

로마가톨릭교회는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중보자라고 말하기도 한다. 교황청은 2000년에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와 로마가톨릭교회가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내용의 교서를 발표한 적이 있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와 그 이후의 신학 선언들의 위협을 감지하고, 종교적 상대주의와 종교다원주의가 로마가톨릭교회의 신앙과 양립할 수 없다고 했다. 진보적 로마가톨릭 신학자들과 종교다원주의를 지지하는 주교들을 거역한 경고였다(주님인 예수님, 제22항). 이 교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바란다(딤후 2:4)”고 한다(제13항, 제22항). 만인보편구원주의의 구원론과 예수 구원 유일성을 모호한 방식으로 결부시킨다(제13항).

제2차 바티칸공의회는 로마가톨릭교회 밖에서 하나님을 찾고 양심대로 생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의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된다고 명시한다. 그러나 위 교서는 “교회 밖에서 영위되는 종교적 믿음(belief)은 여전히 다만 절대적 진리를 찾고 있는 종교 경험”(제7항)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로마가톨릭교회의 구원론은 이처럼 야수적이다.

4. 로마가톨릭 신학자들

타종교인들의 구원에 대한 제2차

바티칸공의회와 신학적 천명은 로마가톨릭 신학자들의 만인보편구원주의와 일치한다. 공의회는 “그리스도께서는 무한한 사랑으로 모든 사람의 죄 때문에, 자원하여 고난과 죽음을 당하심으로써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도록 했다. 따라서 교회는 마땅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하나님의 보편적 사랑의 표지이며 온갖 은총의 원천으로 선포해야 한다(비그리스도교 선언, 제4항)”고 한다.

칼 라너(Karl Rahner, 1886-1968)는 오스트리아 인스브루크대학교에서 가톨릭 신학을 가르친 신학자였다. ‘익명의 그리스도론(Anonymous Christology)’으로 유명하다. 라너는 제2차 바티칸공의회와 만인보편구원주의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의 신학의 핵심은 배교적이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지만 그리스도는 예수만이 아니며, 이 땅에는 많은 그리스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라너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초자연적 은총 아래 있다는 관점으로 기독교의 구원과 일반종교의 구원을 연계시킨다.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타종교들도 하나님이 자유롭게 주시는 선물인 초자연적 은총의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그 종교들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고 한다. 라너에 따르면, 모든 인류는 ‘익명의 그리스도’를 거쳐 각자 자기 나름대로 구원을 받는다. 타종교인들은 ‘익명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이다(칼 라너, ‘익명의 기독교와 교회의 선교적 사명’, <종교다원주의와 기독교>, 김승철 편저, 서울: 나단, 1993, 112). 하나님은 기독교라는 종교를 능가하는 크고 위대한 분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은 기독교인들에게만 해당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구원의 보편적 가능성을 창조행위 안에 존재론적으로 부여했다.

라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 하지 않으며, 기독교에 대해 적대적인 타종교인들에게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딱지를 함부로 붙인다. ‘익명의 그리스도’,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으로 라너가 의도하는 바는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키고, 하나님의 보편적 사랑과 구원을 연결시키는 일이다. 라너는 ‘하나님은 온 인류가 구원 받기를 원한다’는 말로써,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익명의 우주적 그리스도, 보편적 구원자로 변형시킨다.

로마가톨릭교회 신학자 한스 쿡(Hans Kung)은 라너의 ‘익명의 그리스도론’, ‘익명의 그리스도인론’을 ‘신학적 기만’으로 단정한다. 라너의 이론에서 기독교의 역사성은 전부 어디로 갔느냐고 지탄한다. 라너의 사고가 하나의 변증법이며, 그러므로 실제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고 한



최 덕 성 박사
브니엘신학교 총장

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밖에는’, ‘없다’, ‘교회’, ‘구원’ 등 이 모든 개념들을 마구 섞어 놓으면, 결국엔 정반대의 말도 할 수 있게 된다. 곧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많은 구원받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모두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은 아니다. 라너는 이들이 모두 당연히 ‘익명의 로마가톨릭교인들’이라고는 감히 말하지 않는다. 라너가 로마가톨릭교회 사제의 신분을 포기할 각오를 하지 않는 한, 이렇게까지 까놓고 말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비판한다(한스 쿡, <나는 어떻게 변화했는가?>, 서울: 한울출판사, 1998, 111).

라이문도 파니카(Raimundo Panikkar, 1918-2010)는 스페인 출신 로마가톨릭교회 사제이다. WCC의 탈기독교적 신앙 방향 설정에 이바지한 신학자이다. 그는 로마가톨릭교회 신자 어머니와 인도의 힌두교인 아버지 사이에서 자란 종교 경험을 바탕으로 ‘보편적 그리스도론’을 펼쳤다. 파니카는 ‘보편적 그리스도’와 ‘특수한 예수’를 나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지만 그 밖에도 많은 그리스도가 있다고 한다(Panikkar, The Unknown Christ of Hinduism, Maryknoll, NY: Orbis, 1984, 168).

파니카가 말하는 ‘보편적 그리스도’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힌두교의 라마(Rama), 크리슈나(Krishna), 불교의 석가, 이슬람교의 마호메트, 유교의 공자 등이 역사적 인물로 나타난 그리스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 무하마드 그리스도, 공자 그리스도 등 수많은 ‘그리스도’가 있다는 뜻이다.

파니카에 따르면, 일곱 가지 다양한 색깔이 모여 무지개를 이루듯 세계의 각 종교는 한 개의 ‘궁극적 신적 실재’에 대한 서로 다른 문화, 역사의 반응이다. 역사적 종교들은 빛이 스펙트럼을 통과하면서 발생시킨 파장들에 지나지 않는다. 각 종교의 고유소(固有素)는 타종교의 그것들과 더불어 신적 실재를 더욱 완전하게 드러낸다고 한다.

로마가톨릭교회 제2차 바티칸공의회와 보편주의 목소리와 신학자 칼 라너와 라이문도 파니카의 사상에 담긴 종교다원주의 사상은 세계교회협의회(WCC) 신학 안에 메아리치

고 있다. 특히 이 사상은 ‘바야르 선언문(1990)’과 지난해 부산에서 일방적으로 선포한 ‘선교-전도 선언서: 함께 생명을 향하여(2012)’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5. 분석과 질문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막론하고 모든 인간이 중국에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면, 왜 하필 꼭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죄 사함, 중생,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구원 활동이 기독교 밖에도 있다면, 고난과 박해를 받으며 예수를 믿고 기독교 신앙을 가져야 할 당위성이 없다. 한국과 같은 다양한 종교 사회에서, 태국과 같은 불교 국가에서, 이라크와 같은 이슬람교 국가에서, 중국과 북한과 같은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지 않는 나라에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꼭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할 이유가 없다.

만인보편구원주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전도(顛倒)시킨, 뒤틀린 신학 이론이다. 역사적 기독교 신앙의 본류에서 벗어난 신념이다. 신(神)의 보편적 부성(父性)인 사랑을 강조하여 모든 영혼이 조건 없이 구원을 받는다는 신학은, 역사적 기독교의 고백과 성경적 진리에 반(反)하는 이단 교설(敎說)이다. 만인보편구원주의와 종교다원주의는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의 개념을 확대 해석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신앙의 필요성을 상대화하는 결정적인 함정에 빠진다.

바울은 사람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길이 여럿 있다는 발상을 거부한다. “내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롬 10:9)”,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딤후 2:4-5)”,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둔 것 외에는 능히 다른 터를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전 2:10-11)” 바울 사도의 이 같은 언명에는 ‘익명의 그리스도’, ‘알려지지 않은 그리스도’, ‘보편적-우주적 그리스도(Universal Christ)’, ‘숨겨진 그리스도’가 들어설 여지가 없다.

복음 전도는 거짓 신들을 버리고 참 하나님인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초청이다. 하나님과 화해하는 길은 성육(成肉)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뿐이라고 호소하는 활동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일반은총이 모든 인간들에게 주어졌지만 모든 인간이 자력으로, 양심이나 바른 삶이나 미지의 신을 추구하는 행위로 구원을 얻을 가

능성을 말하지 않는다. 구원의 길은 인간으로 강생한 하나님의 로고스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뿐이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서 보여준 계시는 모든 인간적·종교적·사변적 노력을 허물어뜨리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선언은 독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계시한 진리이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만인보편구원주의 사상을 배격했다. 종교의 다원적 존재를 거부했다. 타종교에 대항하고 싸웠다. 타종교와 우상숭배를 동일안 것으로 보았다(엡 4:4-6; 롬 1:20-22; 고전 8:4). “비록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고전 8:5-6)”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구원을 받는다면, 왜 바울 사도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리라”고 외쳤겠는가? 어떤 종교든지 결국 같은 신을 섬기고 그 종교들이 구원의 길이라면, 왜 그는 “우주 만물의 창조주”, “천지의 주재”,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이”를 소개하며 그 신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회개하라(행 17:30)”고 외쳤겠는가? 바울이 믿었던 신은 왜 이미 신들을 믿고 있는 아테네 사람들에게 바울을 보내어 무자비하게도 생명의 위협을 무릅쓴 고난을 감수하도록 허락했겠는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매우 중요하다. “그 이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요 1:12).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여러 사람에게 불일 수 있는 보통명사가 아니다. 약 2000년 전 이 땅에 인간으로 강림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고유명사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만 붙은 독보적 이름이다. “옛날 임금 다윗 성의 낮은 마구”에서 태어나고, 나사렛이라는 시골 동네에 살고, 서른세 살의 나이에 골고다 언덕에서 인류의 죄 문제 해결을 위해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되고, 죽고 부활한 예수, 그분이 유일무이의 구원의 길이다. 하나님과 인간을 중재하는 유일의 구원자이다.

교황 프란치스코께 묻는다. 예수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교리, 곧 만인보편구원주의를 폐기한다고 선언할 용기가 없는가? 이단 사설(邪說)을 버리지 않겠는가? 성경과 사도적 복음에 충실한 개신교회와 일치할 도모하지 않겠는가? <계속>

한미음제지교회

Korean Disciples Community Church

예배당이전 감사예배

북미주 개혁교단(CRC)에 속한 한마음제지교회가 한인타운 중심지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기쁨을 나누고자 하여 이웃을 초청하오니,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위에 세워졌으며, 성경적 개혁신앙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치유와 회복, 전도와 선교, 구제와 인재양성을 소명으로 삼는 교회입니다.

● 예배시간 안내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2부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후 8:00
	(월~금)	오전 6:00
	(토)	오전 6:00
저녁기도	(월~금)	오후 7:30(410호)
교육부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유초등부	주일 오전 11:00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중고등부	금요일 오후 8:00

● 이전 감사예배

일시: 2014년 8월24일 오전11:00
장소: 500 Shatto Place 6층, Los Angeles, CA 90020
(shatto 와 5가, 월드미션대학교 빌딩내)

사랑의 비중 계명을 강조하는
한미음제지교회
목사 **곽부환** 외 온 성도 드림

북새통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신간추천

일어서고 싶다

김대조 | 두란노 | 256쪽

느헤미야를 깊이 묵상하다 보면, 무너져 폐허가 된 우리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된다. 일반적인 강해서가 아니라 '회복'이라는 주제 아래 느헤미야를 새롭게 정리한다. 저자는 "쓰러지지 않았다는 자기 위로에 만족하지 말고, 넘어지더라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응원한다.



예수를 내놓으라

홍숙희 | CLC | 296쪽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갈 길이요 살아야 할 진리를 증언하며,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예수 없이 사는 우리들에게 강력한 도전을 제시한다. 이 글을 통해 독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저자의 심정을 공감하게 될 것이다. 저자는 초등학교 교사로 36년간 재직하다, 신학을 공부하고 신우회에서 성경공부를 인도하고 있다.



아더 핑크의 구원 신앙

아더 핑크 | 생명의말씀사 | 248쪽

'형식적·미온적 신앙을 버리고, 참된 구원신앙을 얻으려면?' 무엇이 진짜 구원신앙이며, 참된 구원신앙을 얻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참된 구원신앙을 가진 신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성경을 통해 제시해 준다. 톤 키슬러의 편집으로,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주제 '구원'을 아더 핑크만의 부드럽고 이해하기 쉬운 설명으로 들을 수 있다.



최근 바울교회 형성 연구 동향

리처드 S. 에스코프 | CLC | 176쪽

CLC가 미국의 Paulist Press의 "What Are They Saying About" 시리즈로 펴내고 있는 '21세기 신학' 열네 번째 책. 회당, 철학학과, 고대 신비제의, 자발적 단체 등 그리스-로마 시대의 다양한 모델들을 살피면서 바울교회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전개한다. 직접적으로 바울의 신앙이나 신학을 다루지 않지만, 바울이 세운 교회들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초정보를 제공한다.



REVIEW

예수님의 진리가 우리 삶의 뼈대가 되어

'거꾸로 읽으며' 살피는 산상수훈의 교훈 <거꾸로 읽는 산상수훈>

익숙한 것들에서는 큰 감동을 얻기가 쉽지 않다. 특히 일상의 언어와 자주 접하는 텍스트들은 신선함을 잃어버려, 처음 그것을 접했을 때의 충격이나 느낌은 날이 갈수록 무뎈진다.

하지만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언어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문학가들을 비롯한 예술가들은 평범한 것들을 재료를 생략과 일탈, 반어와 풍자 등 '낯설게 하기'를 즐겨 사용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같은 텍스트를 반복해서 읽더라도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

하지만 오랜 신앙생활로 매너리즘에 빠진 성도들을 위해, 내용이 아닌 방법론적 차원에서 '낯설게 하기'를 시도해 볼 수는 있을 것이다.

<거꾸로 읽는 산상수훈>은 제목 그대로 마태복음 5-7장의 산상수훈을 '거꾸로' 읽음으로써 "그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더 풍성한 진리를 듣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산상수훈을 다루면서 상고(詳考)하는 순서인 5-7장 순이 아니라 역으로 결론인 7장 마지막에서 출발하여, 가장 초두의 '팔복'에 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저자인 서울열린교회 문정식 목사는 산상수훈의 마지막인 7장 24-27절 '반석과 모래성 비유'가 '마태복음 5-7장의 산상수훈 설교를 살피는 기반'이라고 말한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먼저 가르쳐 주셨던 가르침의 핵심이 결론부인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으로, '거꾸로 읽기'의 이유를 여기에서 찾고

있다. 저자의 말처럼, 일반적으로 '산상수훈' 하면 팔복과 '소금과 빛' 비유, '원수를 사랑하라' 등이 있는 5장과 '주기도문'이 담겨 있는 6장 전반부가 7장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회자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저자는 18편에 걸친 산상수훈 설교를 7장부터 역순으로 진행하고 있다.

결론부이자 산상수훈 가르침의 핵심으로, 책의 첫 장을 장식하는 '지혜로운 사람 같으라(마 7:15-27)'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저자는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잘 알지만, 문제는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고 말한다.

"즉 진리로 자신의 기초를 쌓는 일에 매진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말"이라고 지적한다.



거꾸로 읽는 산상수훈 문정식 | 세움북스 | 246쪽

"일상과 전 생애를 볼 때, 진리에서 우리나라는 무궁한 기쁨을 즐기고 그로부터 이어져가는 복의 계승을 보는 일인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저자는 "우리는 신앙에 있어 너무나 실용적이지만, 실용적이거나 당장의 이익을 넘어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주는, 그러기에 나중에 보면 그 길이 때로는 힘든 것 같지만 결국은 더한 결과를 얻게 되는 그 맛과 즐거움을 모두가 알기 바란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7장부터 거꾸로 살피는 산상수훈의 교훈을 잊지 말고, 진리가 우리의 삶의 뼈대가 되어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마음껏 누리는 기쁨의 소리가 집집마다, 가정마다, 그리고 우리의 얼굴과 말에서 풍겨나기를 기도한다"고 전했다.

이대웅 기자



여러분은 이 물을 마실 수 있습니까?

누군가에게는 생존을 위해 피하고 싶은 더러운 물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생존을 위해 마실 수밖에 없는 물이기도 합니다.

사진: 김상동

아프리카 10억 인구중 5억 8천만 명이 오염된 식수를 마시고 있으며, 한 해 수인성질병으로 사망하는 아동만도 1,500만명에 이릅니다.

Good Neighbo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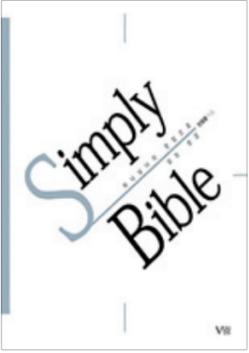
굿네이버스는 UN의 최고 고문 기관으로써 오염된 물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위해 우물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후원신청: 1-877-499-9898 www.goodneighbors.org



성경을 하나의 이야기로... 새 신자들도 이해하도록

성경 개관서 「심플리 바이블」로 돌풍 일으킨 신성관 목사



Simply Bible
신성관 | 베리타스 | 132쪽

“10년 넘게 교회를 다녀도, 왜 성경을 알고 싶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올까요? 틀이 없으니 정리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플리 바이블>은 이 틀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다양한 '성경 개관서'들이 매년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만큼 방대한 양의 성경 텍스트를 일목요연하게 이해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욕구들은 늘어나고 있지만, 개관서 자체의 방대함에 망설이게 되는 것도 사실이다.

일명 '심바'로 불리는 <심플리 바이블(Simply Bible: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읽는 성경)>은, 이러한 기존 성경 개관서들과 차별화를 시도했다. 특히 내용 면에서 성경을 요약하고 연대기와 스토리 중심으로 나열하는 방식을 탈피하여, 성경을 '하나의 이야기'로 정리했다. 이 책은 '하나님 나라'라는 큰 주제 아래, 수많은 인물과 이야기가 등장하는 성경을 신학 주제별로 간단히 정리했다. '하나님 나라'를 왕, 땅, 백성, 법 등 4대 요소로 나눠,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이들 중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알려준다.

제목처럼 '단순화'에 집중해, 분량도 과감하게 줄였다. 동시에 많은 도표와 도식을 통해,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을 알지 못하는 새 신자들도 알기 쉽게 했다. 132쪽에 불과한 이 책은 성서신학을 전공한 30대 저자가 직접 디자인과 출판까지 도맡았지만, 기독교철학자 김기현, 성경 개관서 부문 1위를 몇 달째 지키고 있다. 저자가 2012년부터 여러 강사들을 초빙해 시작한 Veritas 세미나도 입소문을 통해 참가자가 늘어나고 있다.

책을 쓰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이 책은 '현장에서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른 나이부터 교회 현장에서 아이들을 교육하는 사역을 계속 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느꼈던 문제점들에 대한 대안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교회는 아이들에게 질문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를 잊게 만드는 '암기 형식', 그리고 지나친 '윤리 중심'의 교육에 대한 문제의식이었습니다.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을 외우면서도, 그 신학적 의미에 대해 질문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구원받아야 해'라는 설명과 그 방법론에만 급급합니다. 아이들도 점차 해답만을 찾을 뿐, 질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어야 하는가' 하는 이유와 계획을 망각한 채, 방법론에만 치우치는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성경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7년여 간 강의했던 내용들을 시형착오를 거쳐 책으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제목이 왜 '심플리 바이블'인가요.

책을 쓰기 전, 시중에 있는 성경 개관서들을 미리 조사해 보았습니다. 제 생각과 비슷한 책이 있거나, 한국교회에 필요가 없다면 '또 하나의 책'을 굳이 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성경 개관서들이 성경보다 더 두껍다'는 문제의식을 가졌습니다. 흐름과 맥을 짚어줘야 하는데, 성경 66권을 다 해석하려다 보니 내용이 방대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개관'을 하는 책을 쓰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교정 작업을 통해 130쪽 분량을 떨어뜨렸습니다. 저도 신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전문 신학 용어들이나 내러티브적 요소들을 넣을 수 있었지만, 다 빼기로 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나라와 그 계획'만을 넣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기복 의도 자체가 '새 신자들도 읽을 수 있는 성경 개관서'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새신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려면, 구원을 소개하고 그 방법과 복음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 '좋은 소식'을 전하려면 상대적으로 '나쁜 소식'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에 대한 문제 제기가 필요하고, 결국 성경의 내러티브가 등장해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모르는 새 신자들에게 문제를 제기하려면 이를 다 설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새 신자들이 교육을 미처 다 받기도 전에 그만두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설명하려다 보니, 성경 개관서들도 기존 성도들을 위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심플리 바이블>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문제를 신실하게 해결해 가시는가 하는 '신학적 주제'만을 철저히 파고 들었습니다. 저희는 성경을 찾지 않고도 교육시키는 이들이 설명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들

에 도식을 사용했습니다.

-부제는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읽는 성경'인데요.

'톱 라이트'로 시작되는 서문 때문에 우려가 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문제와 톱 라이트의 지적이 크게 다르지 않았기에, 제 이야기보다는 권위있는 성서신학자 톱 라이트의 제안을 꺼내놓은 것입니다. 청의론에 문제가 있다고 그의 모든 주장을 버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톱 라이트는 우리가 구원론 중심으로 성경을 읽는 것을 '우리 중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코페르니쿠스의 혁명'에 대해 말합니다. 교리 중심, 구원론 중심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천동설이라면, 하나님의 계획을 중심으로 읽는 것이 지동설입니다. 구원론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을 읽은 후에 인간의 구원으로 들어가야 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시각의 전환'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 방법론을 책에 도입했습니다. 당신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을 내러티브로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역사적 맥락에서 살피기도 했습니다. 1세기 유대인들에게 '복음'은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 걸 넘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도래하는 것이었습니다. 강의할 때도 '왜 하나님 나라인가?'부터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편집자 주(註)- 이 책은 성경을 크게 구약과 신약으로 분류하지만, 연대기적으로 펼쳐지 않고 구약은 창조, 타락, 예비적 언약, 언약으로, 신약은 새 언약으로 이뤄져 있다고 본다. 이 부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구성한다. 예를 들어 창조는 창조의 목적, 하나님 나라와 인간,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라는 작은 요소들로 나누고, 이를 각각 성서신학적으로 해석한다. 도식으로 전체 구성의 순서를 보여주면서, 내용을 한 눈에 파악하도록 돕는다.

-신학교 졸업 후, 목회가 아닌 강연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청년들이 바벨론에 대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보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전도사님, 다큐에서 창세기의 바벨탑 기사가 바벨론 포로기에 지구라트를 보고 창작으로 쓴 이야기라 해서 충격을 받았어요.' 기본적인 성경 관이나 성경 비평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한때 SBS TV의 '신의



신성관 목사

길 인간의 길' 방영을 한국교회가 굉장히 반대했는데, 사실 목회자들이 신학에 대한 기본적 전제와 기초만 갖춰도 무너질 이유가 없는 것 아닐까요. '기본적 전제 없이 세상적 지식으로 성경의 잣대에 대한 정보가 전달 되면, 이렇게 무너질 수 있겠구나' 하는 우려가 생겼습니다.

미국의 자유주의 신학자 바트 어만의 <성경 왜곡의 역사(정립)>를 읽은 적이 있는데, 그도 '목회 현장 속에서 성경이 어떻게 쓰였는지 왜 솔직하게 말하지 않느냐'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크레이그 에반스의 <만들어진 예수(새물결플러스)>는 그에 대한 입장을 충분히 복음적으로 설명해 냈습니다. 이를 보면서, 성경공부도 중요하지만 대중들에게 신학을 가르쳐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지성인들에게 개론 정도라도 우선 가르쳐 보고자 '베리타스 세미나(www.veritas7.com)'를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성경관에 대한 의식이 생기기 전, 먼저 이에 대한 질문을 제

기하고 복음주의 입장에서 해결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의문을 회피하거나 초자연적 현상 등으로 무마시켜 왔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오히려 성경의 탄생 과정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자는 것입니다. 숨길 이유가 무엇인가요? 성도들은 일반적으로 성경 저자들이 동굴 같은 곳에 들어가서 계시를 받아 성경을 저술하신 것 처럼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접근하면서 개론부터 세미나를 개최했고, 지금은 젊은 학자들 위주의 온라인 강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도 궁금합니다.

앞으로는 정기 세미나도 개최해 제자훈련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고 싶습니다. <심플리 바이블>에 이어, 예언서나 역사서 등 성경 권별 개관서도 만들어 팀별 세미나도 열 계획입니다.

> 문의 : artofchrist@hanmail.net 이대웅 기자

입으면 허리문제가 해결되는 희안한 옷!!

너무 쉬운 NB 코르셋의 원리를 알면 통증의 원인을 쉽게 고칠 수 있습니다. NB 코르셋은 내 몸을 멋진 틀(NB 코르셋 깁스)에 넣어 자연 치유력을 이용한 과학과 지혜로 미와 건강을 만들어 내는 걸작품입니다.



NB CORSET

허리교정을 위한 남성용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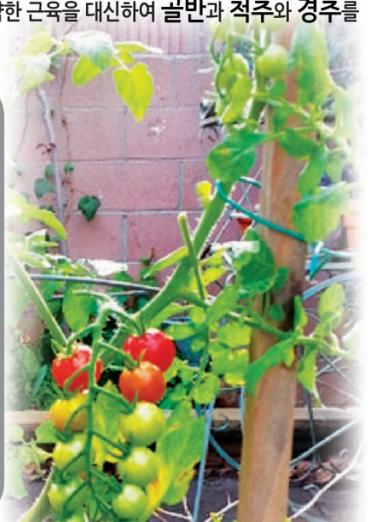
NB 코르셋의 특징

1. 24시간 입어도 갑갑하지 않고 편안함
2. 입자마자 자세가 달라짐(교정)
3. 입자마자 혈액순환이 달라짐(통증완화)
4. 특수 공법의 인체에 완벽한 섬유+세제 특허 이중 지퍼사용 한 식약처에 의료기기로 등록된 옷.

NB 코르셋이 필요하신 분

- >> 디스크환자
좌골신경통 허리통증 척추측만증 교통사고
- >> 각종 질환
요실금 중풍 관절염 손발 저림 만성피로
- >> 체형교정
골반 틀어진 분 허리 굽으신 분 O형다리 거북이목
- >> 미용효과
목주름 많은 분 얼굴비대칭 복부비만 부정교합

쓰러진 토마토를 세우는 것은 버팀목입니다. 의사가 척추를 바르게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깁스를 하지 않고는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버팀목(기립근)이 약해서 제대로 지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NB 코르셋은 늘어나지 않는 특수 천으로 깁스를 대신하고 코르셋 속의 10개의 버팀목이 약한 근육을 대신하여 골반과 척추와 경추를 바르게 교정해줍니다.



NB CORSET Tel: 323.316.6815

http://blog.daum.net/ysbla

3456 W.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9

무료 광고지참시 방문하신 모든분께

*자세 사진 촬영 *현미경 혈행 검사 *체질 검사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웨밀리 자동차 FAMILY AUTO SALES

새차 리스, 중고차 최고가 매입 HONDA, TOYOTA, LEXUS, BMW, MBZ (하이급차,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213.435.5900 714.743.1000

933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중고차 황제 김기형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전문

(213) 342-7776 월서+킹슬리



재미과학자 송문기 박사는 UCLA의 대학 박사 40여년간 연구 개발한 PRO-Z는 미국FDA에 치료 약으로 인정받으며 주성분인 아연과 크롬으로 의약품에서 획기적인 연구개발로 임상평가 받고 있다. 특히 미국의 재향군인 병원에서 임상실험 결과 최소한 6개월복용시 혈당에 탁월한 효과로 개선됨을 확인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당뇨병의 원인 아연은 우리 몸의 대사작용을 하는 필수 미네랄로 인슐린의 저장 및 분비에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저하되어 당뇨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췌장 베타세포의 기능 복원을 개선시키는 PRO-Z가 해결해 드립니다. 현재까지는 수만명의 당뇨약이나 인슐린으로 혈당 유지를 하는데 그쳤으나 PRO-Z는 위장에 인슐린 분해를 확실하게 개선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제제로 세계 최초로 미국 정부로부터 특별한 지원을 받고 있는 당뇨 개선제입니다.

지긋지긋한 당뇨병 탈출

당뇨병을 앓고 있던 당뇨병이 이제는 치료가 됩니다. 새로운 당뇨 개선제 PRO-Z를 6개월만 복용하시면 지긋지긋한 당뇨병에서 해방되어 정상인과 같은 건강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여 줍니다.

1병 \$76
3병 \$200
6병 \$372

PRO-Z USA
미국 판매처

213.434.1170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당뇨병 가능 개선제
PRO-Z

TONERSUM

칼라레이저 프린터 리스(임대) \$49.99/mon 선착순 5명

\$69.99 \$149.99 SAVE: \$80.00 (53%)

MULTIFUNCTION LASER PRINTER 레이저 프린터(칼라흑백) Blow Out Sale!! 삼성토너 스페셜 리스트

SAMSUNG SCX SERIES SCX-3405W

HP, Brother Big Sale Tel. (626) 802-5712

각종 조립식 선반 전문

사고 판니다 New & Used Buy & Sell

Select color

아외용 천막 Canopy Size (5'x5') (10'x10') (10'x20')

상점 및 그라지용 Boltless Shelving

창고용 Pallet Rack

미켓용 Gondolas

중고 선반 대량 보유

99센트 미켓 선반 창고 선반 수량 불문 현찰 매입

조립식 선반을 전문으로 취급하여 딜러십을 보유한 선반 전문 회사

(323)855-5687 / (213)200-3050 / (213)623-5491
646 S. San Pedro St. Los Angeles, CA 90014 Downtown LA (Between 6th, 7th St)

법률 문제로 답답한 가슴을!!!

공인 법무사(CERTIFIED L.D.A & PARALEGAL #227 / BOND 5785BF1090)인 계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한테 가시기전에 "꼭 먼저" 만나 보아야 할 사람입니다!

퇴거, 파산, 이혼, 이민, 민사소송

기타 각종 법정 서류 작성

714-349-8934 (한국말) 잔 안

714-667-0728 (영어) 2112 N. MAIN ST. #290, SANTA ANA
213-487-0728 (영어) 1543 W. OLYMPIC BL. #422, LA

K.T. 택배 T. 213-365-8588

말도 안되는 가격 \$ 6.99 초고속 픽업 & 배송!!

전화 한통화로 당일무료 픽업!

무료포장 (박스, 충격흡수제 무료)

최저 가격!! 인터넷 사업자 대박우대

소량화물 4개중 1개 공짜!

"가격은 낮추고 서비스는 최고로 모시겠습니다"

법무사 사무소 법적 해결

소장: Kenny Oh (323)377-5702 ko7law@gmail.com

변역 (학술/사업/개인) | 법정통역, 소송/방어서류

민사법 의도/과실/사기/부당 행위 피해, 입주자분쟁(소송/방어) 접근 금지 법원 명령

계약법 작성/분석/분쟁/수금문제 가정법 약식/일방이혼

1543 W. Olympic Bl. #580 LA. CA 90015 Law Office of R. Song

모/든/문/제/체/류/신/분/과/무/관

L.A. 커튼

"우드셔터, 각종 블라인드, 썬 스크린 롤러 Shade"

거리불문 무료견적

HunterDouglas Sunland Shutters 공인딜러

Tel. 213.447.1101 43406 Stancliff Ave. Lancaster, CA 93535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온돌마루

UL마크 인증제품 사용 NRTL(미국 전기 안전 규격제품).

획기적인 절전제품/ 전자파제로

안방 아랫목, 거실, 기도실, 유아방, 잠실방 설치중

피코 건축자재 (피코+카탈리나) 213)256-4884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귀국· 시내· 타주이사· 차량운송

한국식 포장이사도 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www.easy2424.com

치우차우만두

• 찐빵 • 고기만두 • 김치만두
• 야채만두 • 물만두 • 군만두

교회 단체주문 환영합니다. 냉동만두 판매/매달합니다.

CHI CHAU MANDOO 213.368.0922
3500 W. 6th St., Suite 100 Los Angeles CA 90020

한방생리대 도.소매

G. Together Inc.

- 인삼생리대
- 익모초생리대
- 한방생리대

Edward Kim 김인태, CEO
213-392-2323 (Korean) 213-500-5896 (English)
3544 W. 3rd St. Los Angeles, CA 90020 / G_Together_Inc@yahoo.com

A-1 정비 오일 교환

엔진 & 미션 전문

76 오일사용

10% 할인

\$23.99 *tax 6cyl.
\$18.99 *tax 4cyl.
\$28.99 *tax 8cyl. (Carbon Filter Extra)

✓트랜스미션 ✓타이밍벨트
✓브레이크 ✓툰업정비

Tel. 323.737.2922 Tran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베데스다 의료 봉사센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의료혜택을 못받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치과와 양, 한방등의 진료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213-384-7078

쇼스피드 다이어트

치아미백 잇몸 시큰거림 풍치예방 3달분 \$60

1주에 7파운드~25파운드 감량

배배는 속변약 몸 전체 부종 빠지는 약 한달 \$50

하머니크림 (습윤크림)

- 임신 중 트살 방지
- 건선으로 인한 붉은 주름(얼굴, 목)
- 트고 갈라진 피부 보습(발 뒷꿈치)
- 치질(항문하혈, 통증)
- 독소제거
- 갑상선, 당뇨병, 정력제
- 불임증(자궁축, 하혈)
- 우울증
- 관절염
- 원형탈모
- 구연산 캡슐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한국어: 213.380.7800 각종보험취급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드모어) 영영시간: 월~금:10시~5시/ 토 10시~2시 영어: 213.380.6868 (오바마 케어 포함)

이번달 스페셜 리스 프로그램 이벤트

"2015년형 뉴 제네시스 입하"

www.winhyundaicarson.com 한인타운에서 15분에서 20분거리

Genesys 2015 ALL IN STOCK @ \$36,120 ALL NEW 2015 GENESYS SEDAN Lease for \$249 PLUS TAX @ 36 MONTHS

Genesys 2014 ALL IN STOCK @ \$36,120 Lease for \$399 PLUS TAX @ 36 MONTHS

Equus 2014 signature ALL IN STOCK @ \$61,920 Lease for \$399 PLUS TAX @ 36 MONTHS

Alex Shin 한인 Manager 2201 E. 223rd St., Carson, CA 90810 ashin@winhyundaicarson.com Phon: 310.830.5100 (Ext 653) Cell : 562.900.2399 Kakao ID: alexshin878

현대차를 원하시는 당신께 최고의 가격을 제공하겠습니다!!

주말에도 오픈합니다.

유학생, 상사 주재원 도와드립니다. Bad Credit, No Credit 연락주세요. 미 서부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딜러

All advertised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any electronic filing charge, and dealer document processing charge, and any emission testing charge. All vehicles are at Carson location. Offers available through Jan. 27, 2014

「다시 듣는 결혼수업」의 저자 쉐호프 부부를 만나다

“가장 중요한 자녀교육, 부부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

1998년부터 한국에서 상담 사역을 시작했으며 2005년부터 한동대학교에서 상담심리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하인즈 쉐호프(Heinz Schoenhoff) 박사가 최근 <다시 듣는 결혼수업(Building Your Marriage)>을 펴냈다.

한동대 인기강좌를 옮겨놓은 이 책에서 쉐호프 박사는 결혼과 가정에 대한 '성경적 가치관'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깨지고 상처받은 결혼과 가정의 원인과 함께 본래 모습을 제시하고, 그 해결책으로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한 부부의 일, 재정, 성(性) 등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들도 제공한다.

하인즈 쉐호프 박사를 만나는 자리에는 같은 학교에서 언어학을 가르치고 있는 아내 엘시 쉐호프 박사도 함께했다. 다음은 이 책을 번역한 조운영 박사의 통역으로 진행된 저자 부부와와의 일문일답.

-대학에서 상담을 진행하신 지난 10여년 간 학생들의 고민이 변했나요? 10년 전과 지금, 가정과 결혼에 대한 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인가요?

하인즈: 고민을 털어놓으러 온 학생들 대부분이 '자라면서 부모에게서 받은 상처로 인해 본인이 인간관계를 맺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아버지와 좋은 관계를 맺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아버지로부터 신체적 학대를 당하거나 폭력 또는 언어 폭력, 알콜 중독 등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특히 아버지의 간통으로 가정의 평화가 깨어진 가정도 적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자녀들을 위해 내색하지 않으려 해도 그런 죄를 지은 아버지들은 자녀들에게 애정 표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알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 안에서 건전한 성적 관계가 유지되지 못하면 특이나 딸에게 애정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부 상담을 할 때는 서로에게 지은 죄들을 입으로 고백하여 치유를 경험하게 합니다. 이혼할 부부라 해도 서로 죄를 고백하고 용서하는 과정을 통해 본인들의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버지와 관계'에 대한 고민은 20여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합니다. 지금의 20대는 아버지와 상처가 많으면서도 이를 고백함으로써 치유받고 있는 세대입니다. 이 문제는 두 세대는 지나야 해결될 것 같습니다. 지금 20대들의 아버지를 생각할 때, 아버지들이 자신의 아버지와 많은 갈등이 있었다면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세대가 성경적 가르침을 통해 상처를 치유했다면, 다음 세대로 이것이 이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희망은 있습니다. 아버지의 아버지 세대, 즉 할아버지 세대부터 지금까지는 교회가 계속 성장하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상황이 나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엘시: 1990년대만 해도 한국교회에서는 가정에 대해 그리 강조하지 않았습니. 1998년에 세미나를 하면서 상담학 박사 과정의 여성을 만났는데, 교회에서 상담 사역을 하러가지 않아 목회자들을 설득해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요. 많은 성도들이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 고민에 대해 학생들에게 뭐라고 답해 주시는지요?

하인즈: 가장 희망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아버지'로 보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아버지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랐을 뿐임을 자녀들이 깨닫는다면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의 힘은 놀랍습니다. 오랫동안 지배해 온, 상처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내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는 것과 함께 일어나야 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혼자 끙끙 앓으면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모두 내어놓아야 합니다.

엘시: 아버지를 용서하는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하신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처럼, 젊은이들이 마음 속의 불안들을 치유하려면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께 모두 던져 버려야(cast down) 합니다.

하인즈: 그래서 저는 상담할 때 마음 속에 있는 모든 상처와 분노를 다 적어보라고 합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염려나 불안이 생기거나 화가 날 때마다 적어 보라고요. 그리고 그 종이를 구겨서 십자가 너머로 던져버리라고 합니다(웃음). 성경은 조용히 드리라 하지 않고, 다 드러내서 던져 버리라고 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받은 학대와 상처 등을 치유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고 용기도 필요하지만, 이런 식으로 조금씩 해 나가는 것입니다.



쉐호프 부부가 함께한 모습

-자녀 교육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가치를 어디에 두고 계시는지요?

엘시: 가장 중요한 것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와 함께하고 서로를 사랑한다면 자녀들이 중간에서 방황하거나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힘들어 하지도 않으며 굉장히 안정감을 누립니다.

다음으로는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스승과 권위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도 가르쳐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통해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하인즈: 어른이 된 후에는 다른 이야기이지만, 양육을 받을 때는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집안의 의사결정에 있어 '한 팀'이 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을 훈련시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순종을 가르친다면서, 사실상 무조건 지시에 따르기만을 강요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이야기를 듣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순종이 아닙니다. 무조건 복종을 가르치라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이혼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필요악'인가요?

하인즈: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혼'에 대해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맞다, 틀리다'를 말씀하시진 않았어요. 대신 창세기 1-2장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창조 때에는 이혼이 없었지요. 예수님은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하시면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

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마 19:5-6)'고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혼하게 되는 이유는 '마음이 굳어져서'입니다. 예수님도 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하지만 간음이나 간통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서로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경우에는 이혼할 수 있지만, 원래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놀란 이유는 당시 간음과 이혼이 율행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이혼은 엄청난 고통이 뒤따르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혼한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친밀한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부부 사이에 친밀한 관계를 갖기도 힘들 겁니다. 하지만 성경님을 통해 상처를 회복하고 부모를 용서한다면, 다시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어렵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혼전순결은 구시대적 발상이 됐고, 성(性)은 더 이상 결혼 이후가 아니라 이전의 문제가 되고 말았습니까. 아이러니하지만 기독교적 가치관에 기반한 서구 문명을 받아들이면서 심해지고 있는 이 문제에 교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하인즈: 유교적 전통이 없는 독일 같은 나라에서도, 결혼 전 성관계는 안 된다고 강하게 금지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처음 건너갔을 때도 혼전순결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유교가 그런 점에서는 성경과 통했는지도 모르지만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성경을 우리의 가이드북으로 삼아야 합니다.

성경은 강하게 결혼 전 성관계를 금지합니다. 하지만 젊은이들과 이야기해 보면, 결혼 전 성관계가 일반화된 것 같습니다. 이는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4-5절, 디모데후서 5장, 요한계시록 21-22장 등 여러 구절을 통해 하나님은 결혼 밖의 성관계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결혼 전, 예비 신랑·신부가 준비해야 할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엘시: 정말 많지요(That's long list). 먼저 신앙은 재정적으로 가정을 책임져야 합니다. 직업 문제와 함께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가장이다, 나는 남자다'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가정을 위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지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 안에서 안정된 관계를 갖고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요즘 많은 남자들이 자신을 '리더(leader)'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리더에는 다양한 스타일이 있겠지만, 많은 경우 가장으로서 앞장서기보다 부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심지어 아내에게 미루기도 합니다.

신부들에게는 '기숙사에서 톰메이트와 잘 지냈는가?'라고 물어봅니다. 힘들었다고 하면, 결혼 준비가 아직 안 됐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여성으로서 자신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기꺼이 도와주고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절제해야 하는지 배워야 합니다. 감정에 끌리는 대로,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절제를 배워야 합니다. 물론 살림이나 요리 등 세세한 것들도 배워야겠지요.

또 어떻게 아이들과 상호 작용을 하는지 모른다면, 연습도 필요합니다. 자신을 점검하는 데서부터 자녀와의 관계나 남편을 돕는 자로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살펴야 하겠습니까.

하인즈 쉐호프 박사는 아내 엘시와 함께 지난 40여년 간 상담가, 목회자 및 교수로 활동해 왔다. 현재는 한동대학교에서 교수로 활동 중이며 주일에는 포항제일교회에서 외국인들을 위한 예배와 설교를 담당하고 있다.

이대웅 기자

Sales • Rental • Service • Free Estimate • Supplies

10% 최저 1장

복사기 판매 렌탈 서비스

FMB RENT PROGRAM

- SERVICE는 물론 TONER, DRUM ROLLER 등 모든 PART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기적으로 SERVICE를 실시합니다.
- 4시간내 A/S를 신속 처리



최신식 디지털
COLOR COPY MACHINE
칼라카피어 렌트전문!



칼라카피

FBM First Business Machines, Inc

전화문의 (800)582-3321 / (562)802-9044

Fax : (562)802-8094

www.fbmcopiers.com

13245 E. Rosecrans Ave., Santa Fe Springs CA 90670

북미 최대 한인 현대 딜러



SONATA PREMIERE EVENT

SONATA PREMIERE EVENT

PH 푸엔테힐스 현대 PUENTE HILLS HYUNDAI SUPER STORE
Puente Hills Hyundai

소나타를 만나는 특별한 기회! 지금 푸엔테 힐스 현대에서 확인하세요!



2015 SONATA SE BASE

\$888

+TAX 36 Mon.

MSRP: \$22,085. 36 month lease. \$3,999 DUE AT LEASE SIGNING + \$500 VALUED OWNER COUPON + \$500 MILITARY REBATE + \$400 COLLEGE GRAD REBATE

2015 ALL NEW GENESIS SEDAN

\$428 **+TAX 36 Mon.**

MSRP: \$55955 / SELL : \$50428 LEASE DUE AT SIGNING \$6,275 12,000 MILES PER YEAR VOC \$1000, LEASE \$500. BOOST UP CASH \$500, MILITARY REBATE \$500. COLLEGE GRAD REBATE \$400



SAVE UP TO **\$15,000**

2013 NEW EQUUS SIGNATURE (DEMO)

PURCHASE FOR AS LOW AS

\$45,170 **+FEES**



HYUNDAI

1-888-850-2077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스티브 장 626.513.4006



찰리 정 626.513.4981



저스틴 길 626.513.4580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HYUNDAI Assurance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 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

www.phhyundai.com

